

제 26 장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정은미* · 김수림** · 지현서*** · 김종규****

목 차

종합	4. 딸기
1. 수박	4.1. 수급동향
1.1. 수급동향	4.2. 수급전망
1.2. 수급전망	5. 오이
2. 참외	5.1. 수급동향
2.1. 수급동향	5.2. 수급전망
2.2. 수급전망	6. 호박
3. 토마토	6.1. 수급동향
3.1. 수급동향	6.2. 수급전망
3.2. 수급전망	7. 과채 농가 경영과 수출 동향
	7.1. 과채농가의 향후 경영 의향
	7.2. 과채류 수출 동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eonge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ur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pnu@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kkim@krei.re.kr

중 합

- 2009년 과채(6개 품목 기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재배면적은 2009년보다 1% 감소한 5만 3,989ha로 예상되며 향후 감소는 지속되어 2020년은 5만 1,594ha로 전망된다.
- 2010년 품목별 재배면적은 2009년보다 수박 3%, 오이 2% 감소하지만 참외, 토마토, 호박은 비슷하고 2020년은 참살이 수요 증가로 토마토와 호박은 2009년보다 9~10% 증가하지만 오이, 참외, 수박은 6~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09년 과채 생산량은 기상호조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보다 1% 증가하였다. 향후 재배면적이 줄지만 시설재배 기술의 발달로 단수가 증가하여 2010년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2020년은 2009년보다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과채 표본농가(2,395호)의 향후 경영의향을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 계속 경영’은 참외 85%를 제외하면 50% 내외이며 토마토, 호박, 오이 ‘가격에 따라 타작목 전환’이 각각 23%, 26%, 19%로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로 경영의 애로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가상승으로 인해 시설자재·농약·노동비 등 각종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 중 약 9%를 차지하는 채소류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지만 최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한국 드라마 수출을 계기로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한식(韓食)을 비롯한 먹을거리 문화도 빠르게 전해지며 한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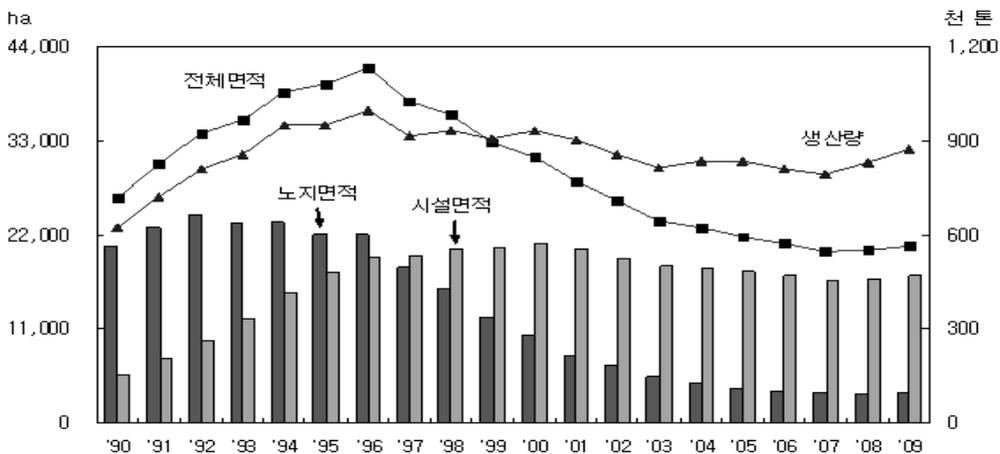
1 수 박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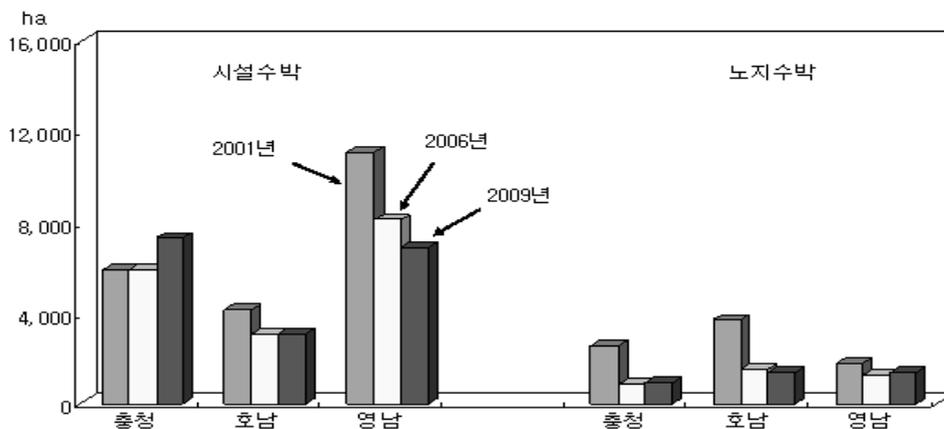
- 수박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연평균 4% 감소하고 있다. 시설면적은 노동력 부족과 연작장애로 인한 휴경, 대체과일 증가에 따른 소비둔화로 연평균 2%, 노지면적은 기상에 따른 생산 불안정으로 9% 감소하고 있다.
- 2009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만 707ha이다. 시설재배는 전년과 비슷한 1만 7,210ha, 노지재배는 전년보다 1% 감소한 3,497ha이다.
- 수박 단수는 2001년 이후 다수확 고품종의 보급과 재배기술 상향평준화로 연평균 3% 증가하였다. 2009년 단수는 전년보다 4% 증가한 10a에 4,297kg로 추정된다.

그림 26-1. 수박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2. 수박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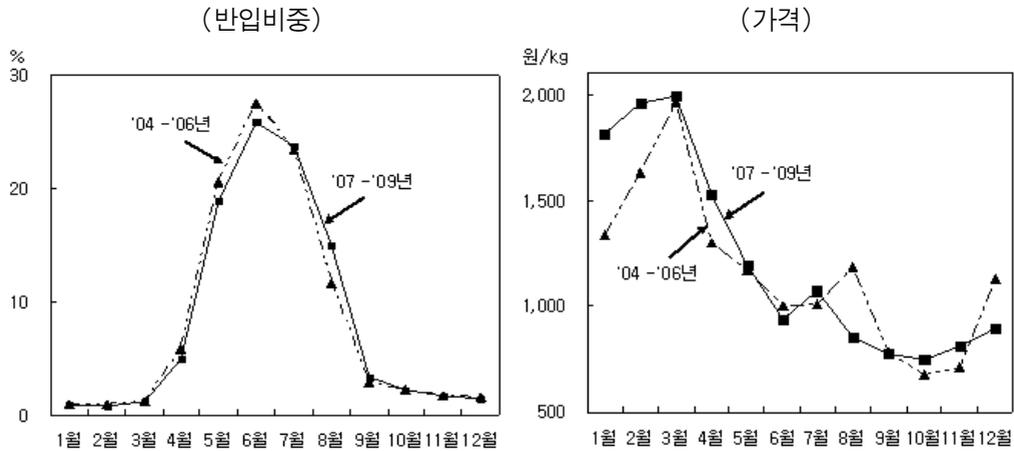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 수박 생산량은 2001년 이후 단수가 증가하였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연평균 1% 감소하였다. 2009년은 재배면적이 전년과 비슷하지만 단수가 높아 전년보다 4% 증가한 89만 톤으로 추정된다.
- 시설재배는 영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호박, 토마토, 멜론, 딸기 등으로 전환하거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2001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반면 충청지역은 주 출하기 가격강세와 지자체 시설지원 사업으로 재배면적이 늘어 2009년은 2006년보다 2% 증가하였다.
- 노지재배는 소득 불안정으로 2009년은 2001년과 2006년보다 각각 56%, 6% 감소하였다. 그러나 영남지역은 출하기 가격상승 기대로 감자, 고추 등에서 전환되어 재배면적이 2006년보다 10% 증가하였다.

1.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수박의 서울(가락) 도매시장 월별 반입비중을 과거 3개년(2004~2006년)과 최근 3개년(2007~2009년)으로 비교하면, 4~6월 반입비중이 감소한 반면 7~9월 반입비중은 증가하였다.

그림 26-3. 수박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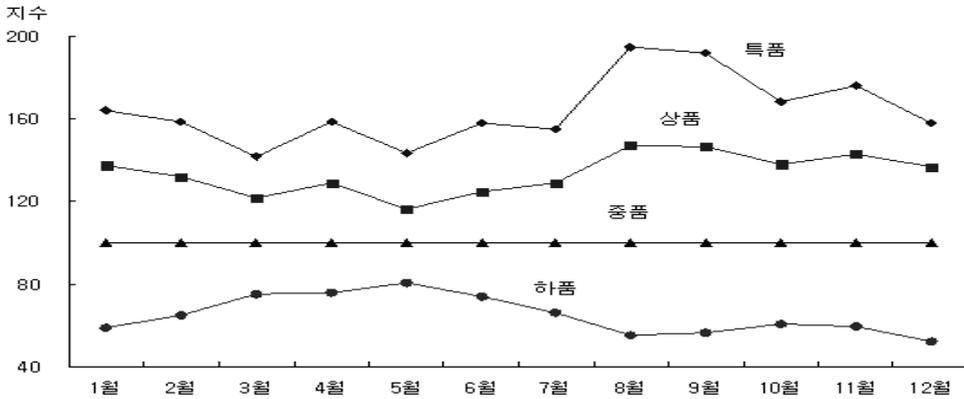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영남지역에서 고령화와 품목 전환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4~6월 반입비중은 감소한 반면, 7~9월은 노지수박의 작황호조와 시설 2기작 면적 및 후작형태의 수박재배가 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6월 실질도매가격은 반입비중이 감소하여 1,157원/kg에서 1,221원/kg으로 6% 상승하였고 7~9월은 반입비중이 증가하여 992원/kg에서 901원/kg으로 9% 하락하였다. 특히, 8월은 저온현상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 수박의 최근 3개년 등급별 가격지수는 중품 기준으로 8월이 특품 195, 하품 55로 등급별 차이가 가장 컸고 5월은 특품 44, 하품 19로 가장 작았다. 5월을 기점으로 가격 격차가 커져 7월 이후 출하되는 2~3기작 수박의 품질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4. 최근 3개년 수박 등급별 가격지수 추이(중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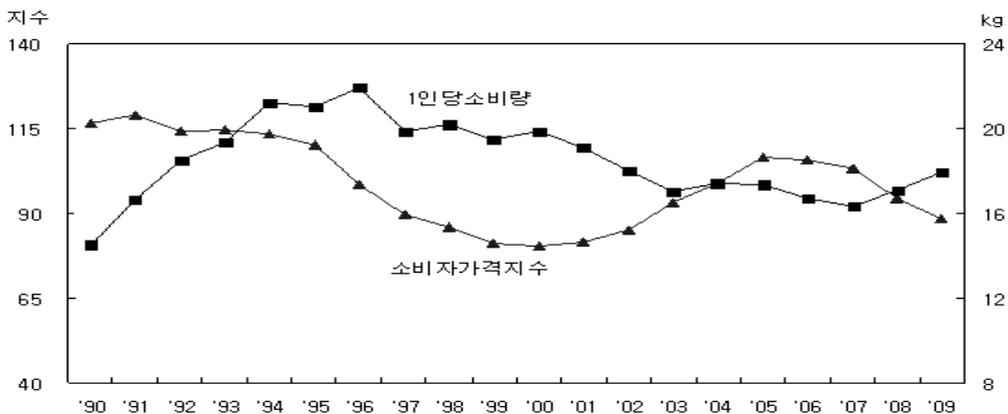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축산물 거래연보」.

1.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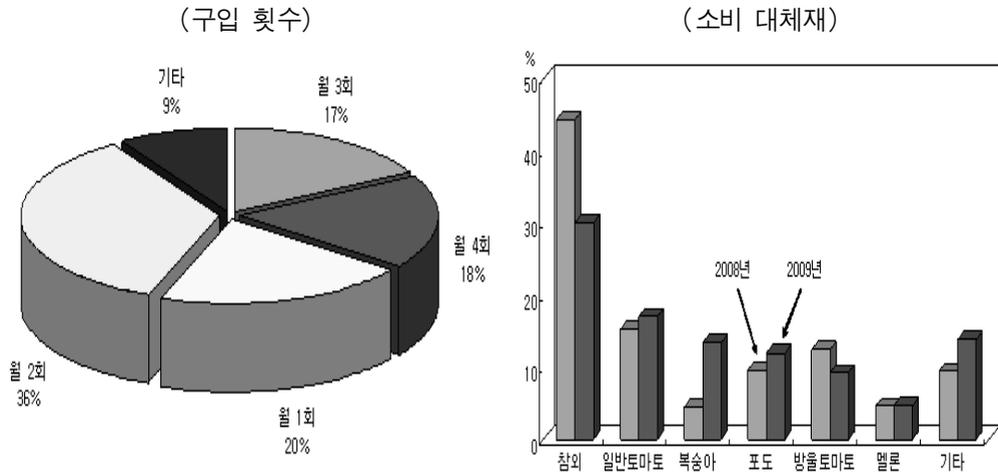
- 수박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1%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09년은 공급량이 많아 전년보다 4% 증가한 18.3kg으로 추정된다.
- 수박 실질소비자가격은 2005년 이후 연평균 4% 하락하고 있다. 여름철 수요가 많아 품질 좋은 수박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대체과일 출하도 많기 때문이다.

그림 26-5. 수박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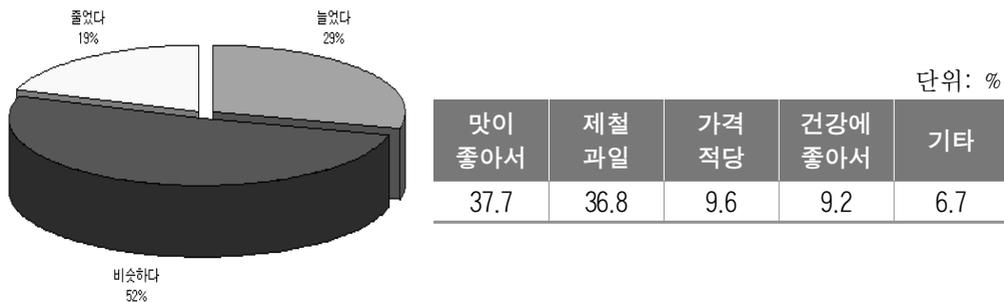
주: 1) 수박 가격지수는 수박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6. 수박 구입 횟수와 소비 대체재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그림 26-7. 수박 소비량 변화와 변화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 2009년 6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패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수박을 구입하는 횟수는 ‘월 2회’ 36%, ‘월 1회’ 20%, ‘월 4회’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는 수박 가격이 비쌀 경우 참외 30%, 일반토마토 17%, 복숭아 13%, 포도 12%의 순으로 소비를 대체하였다. 전년보다 참외로 대체하는 비중이 14%p 줄었지만 일반토마토, 복숭아, 포도 등은 2~9%p 증가하여 소비대체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비자의 수박 소비량은 전년 6월보다 ‘비슷하다’ 52%, ‘늘었다’ 29%로 조사되었으며 이유는 ‘맛이 좋아서’ 38%, ‘제철과일이므로’ 37%, ‘가격이 적당해서’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수급 전망

- 2010년 축성 및 반축성 수박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남과 충청지역 시설재배는 정식기 가격하락과 지역개발로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역은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재배면적은 축성·반축성 정식기 및 2~3기작 출하기 가격약세로 2009년보다 3% 감소한 2만 103ha로 전망되며 이후 연평균 1% 감소하여 2015년 1만 8,357ha, 2020년 1만 7,126ha로 추정된다.
- 2010년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2009년보다 1% 감소하며 이후 연평균 2% 감소하여 2015년 80만 톤, 2020년 74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박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17.9kg으로 2009년보다 2% 감소하고 2010년 이후 연평균 2% 감소하여 2015년 16.2kg, 2020년 15.1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1. 수박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09	전망		
			2010	2015	2020
재배면적	ha	20,707	20,103	18,357	17,126
단 수	kg/10a	4,297	4,364	4,361	4,347
생 산 량	천톤	890	877	801	744
1인당 소비량	kg	18.3	17.9	16.2	15.1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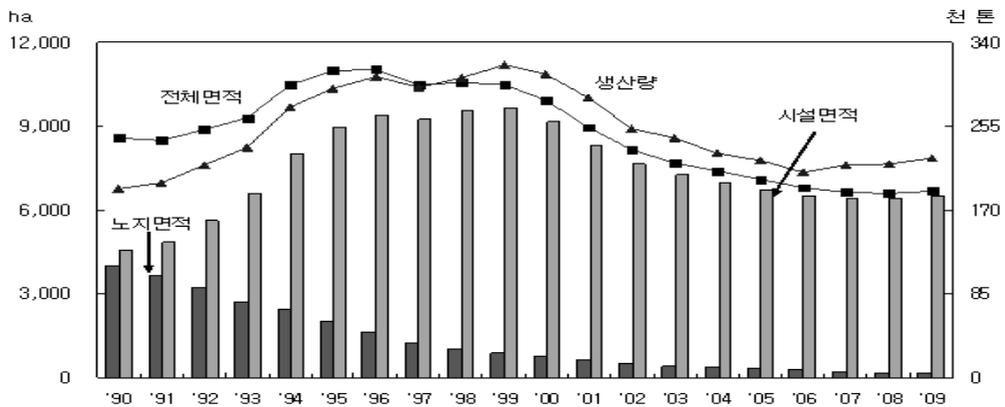
2 참 외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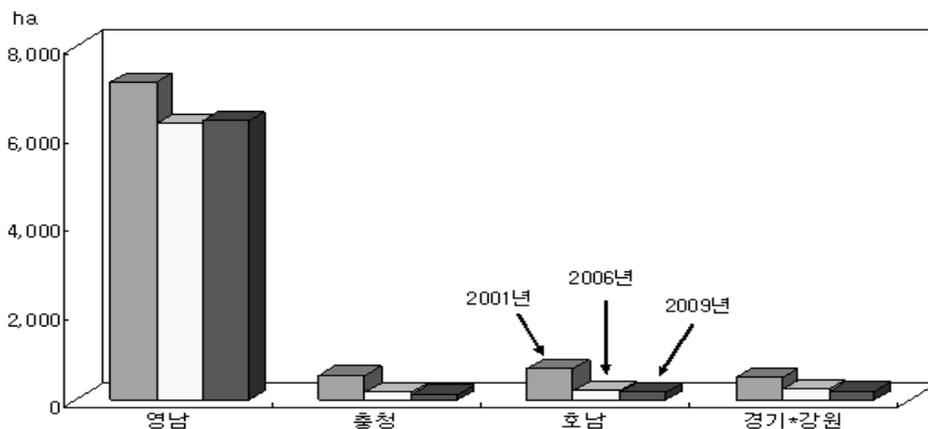
- 참외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고 있다. 불안정한 생산성으로 노지면적은 연평균 19%, 시설면적은 노동력 부족과 대체과일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2% 감소하고 있다.
- 2009년 참외 재배면적은 최근 가격강세로 전년보다 2% 증가한 6,730ha로 나타났다. 시설참외는 전년보다 3% 증가한 6,602ha, 노지참외는 36% 감소한 128ha이다.
- 참외 단수는 2001년 이후 병해충 방지 및 재배기술의 상향평준화로 연평균 1%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으나 병해충 발생이 적어 전년보다 1% 증가한 10a에 3,356kg로 추정된다.

그림 26-8. 참외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물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9. 참외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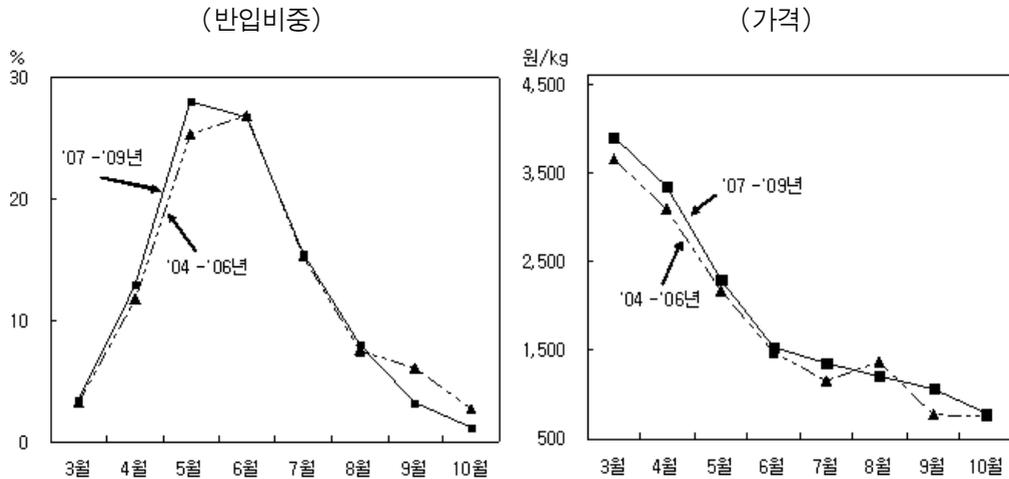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 참외 생산량은 2001년 이후 단수가 증가하였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연평균 2% 감소하였다. 2009년은 전년보다 2% 증가한 22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참외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5개년 가격 강세로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영남지역은 신규 재배가 늘어 2009년은 2006년보다 1% 증가한 6,322ha이었다. 특히, 대구지역은 2006년보다 2배 증가한 498ha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 영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영남지역의 재배면적 비중은 2001년 83%, 2006년 92%, 2009년 94%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은 전체 재배면적의 74%, 87%, 91%를 차지하여 주산지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출하 및 가격 동향

- 참외의 서울(가락)도매시장 월별 반입비중은 4~7월에 집중된다. 최근 3개년(2007~2009년)은 과거 3개년(2004~2006년)에 비해 4~7월 반입비중이 증가한 반면 8~10월 반입비중은 감소하였다.

그림 26-10. 참외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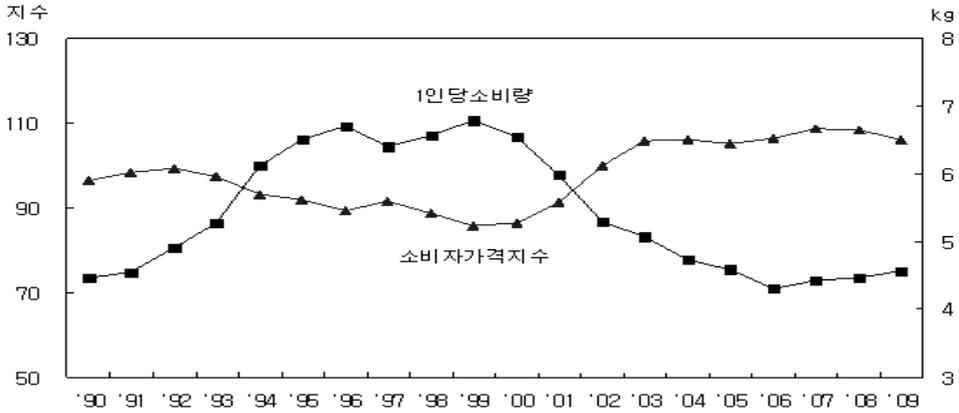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4~7월 반입비중이 증가한 것은 조기 출하 시 가격이 높아 정식을 앞당기는 경향 때문이며 8~10월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 토양관리를 하는 등 출하를 조기 종료하여 반입비중이 감소하였다.
- 4~7월 실질도매가격은 반입비중이 증가하였지만 고품질 생산으로 여름철 참외 수요가 늘어 과거 3개년 1,973원/kg에서 최근 3개년은 2,133원/kg으로 8% 상승하였다. 3월과 8~10월은 반입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실질도매가격은 각각 2%, 1% 하락한 3,266원/kg, 933원/kg으로 나타났다.

2.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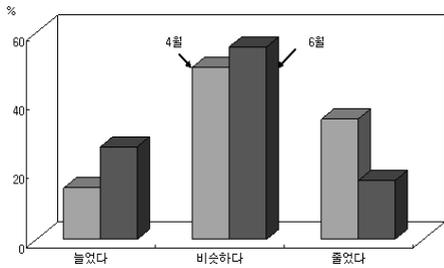
- 참외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이후 실질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연평균 3% 감소하고 있다. 2009년은 공급량이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한 4.6kg으로 추정된다.
- 2001년 이후 참외 실질소비자가격은 연평균 2% 상승하고 있다. 이는 재배기술 향상으로 인한 고품질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11. 참외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주: 1) 참외 가격지수는 참외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12. 참외 작년대비 소비량 변화와 변화 이유



단위: %

감소 이유	대체 과일	가격 비싸	소득 감소	맛이 없어	기타
		40.5	26.3	13.1	10.0
증가 이유	맛이 좋아	제철 과일	가격 적당	건강 좋아	기타
		47.4	28.1	16.6	4.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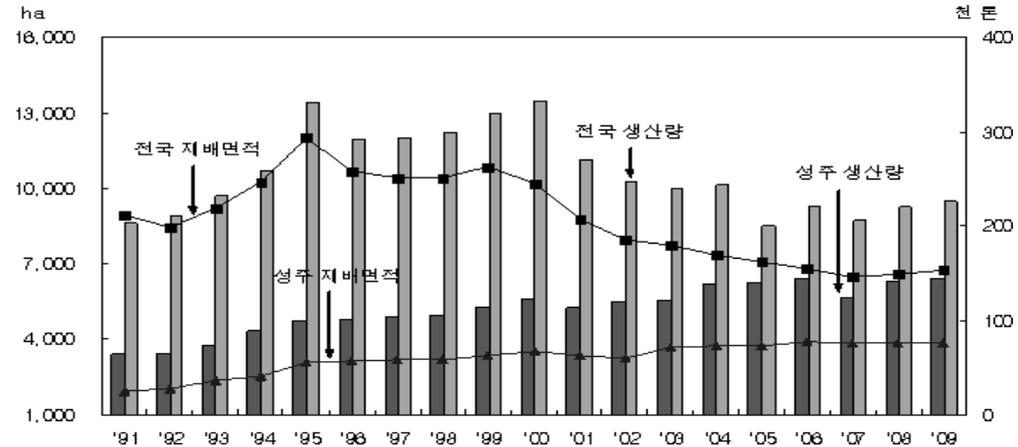
- 소비자의 참외 소비량은 전년보다 4월은 ‘비슷하다’ 50%, ‘줄었다’ 35%, 6월은 ‘비슷하다’ 56%, ‘늘었다’ 27%로 조사되었다. 참외 소비는 4월보다 6월 소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늘어난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47%로 소비자는 고품질 참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경북 성주의 재배면적과 시장 동향

- 참외 최대 주산지인 경북 성주의 재배면적은 신규 재배와 규모 확대로 2001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전국 재배면적의 58%인 3,872ha로 전년보다 52ha 증가하였지만 농가는 2% 감소한 4,913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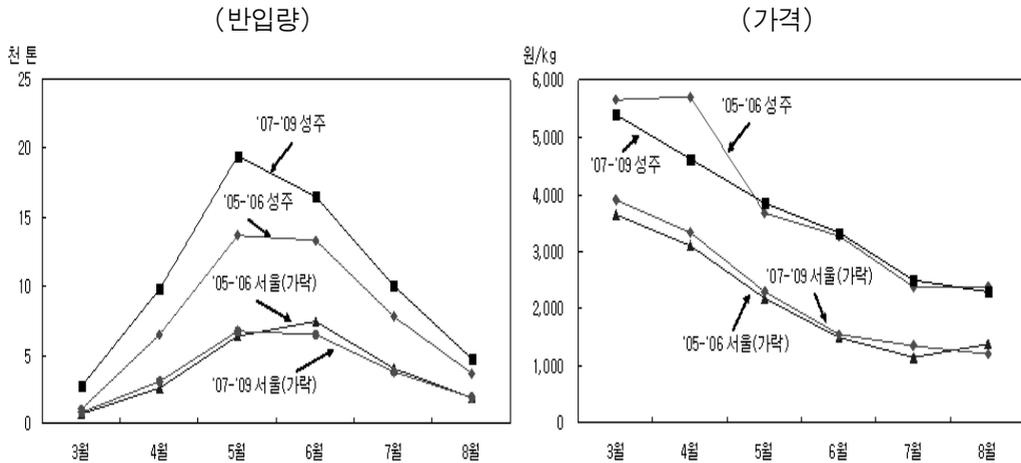
- 성주의 생산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전년보다 1% 많은 14만 4천 톤으로 추정되며 전국 생산량 기준으로 성주의 비중은 2001년 42%에서 2009년 64%로 증가하였다.

그림 26-13. 경북 성주의 참외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성주군청.

그림 26-14. 주산지(성주)와 서울(가락)의 반입량 및 가격 비교



자료: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경북 성주의 3~8월 반입량은 서울(가락)도매시장보다 과거 2개년(2005~2006년) 2.0배, 최근 3개년(2007~2009년) 2.8배 많았고 평균가격은 산지가격이 각각 1.8배,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외 실질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의 경우 과거 2개년과 최근 3개년 변화 추이가 비슷하나 경북 성주의 경우 과거 2개년은 3~4월 가격이 높게 유지된 반면 최근 3개년은 3월 가격이 가장 높았다. 과거 2개년 4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저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고 대체과일인 수박의 공급량도 적었기 때문이다.

2.3. 수급 전망

- 2010년 참외 재배면적은 2009년과 비슷한 6,713ha으로 전망된다. 경북 성주는 가격강세로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면적을 줄이거나 고추, 포도, 수박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0년 이후 재배면적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연평균 1% 감소하여 2015년 6,461ha, 2020년 6,201ha로 전망된다. 2010년 참외 생산량은 200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감소하여 2015년 22만 톤, 2020년 2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외 1인당 소비량은 2010년 4.6kg으로 2009년과 비슷하고 2010년 이후 연평균 1% 감소하여 2015년 4.4kg, 2020년 4.3kg으로 전망된다.

표 26-2. 참외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09	전망		
			2010	2015	2020
재배면적	ha	6,730	6,713	6,461	6,201
단 수	kg/10a	3,356	3,361	3,386	3,411
생 산 량	천톤	226	226	219	212
1인당 소비량	kg	4.6	4.6	4.4	4.3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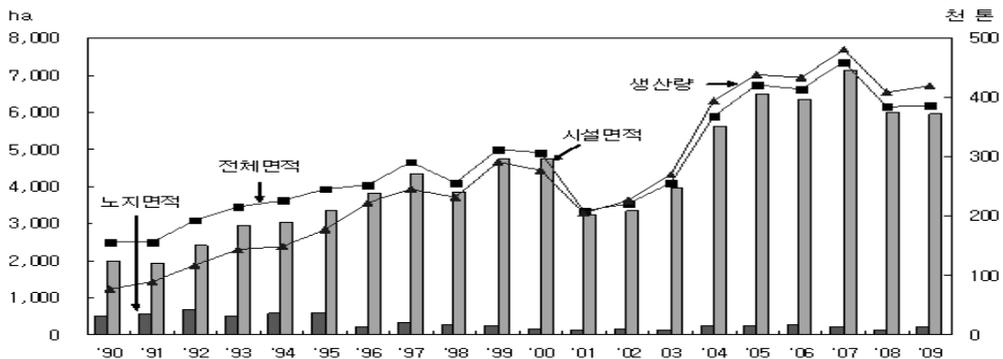
3 토마토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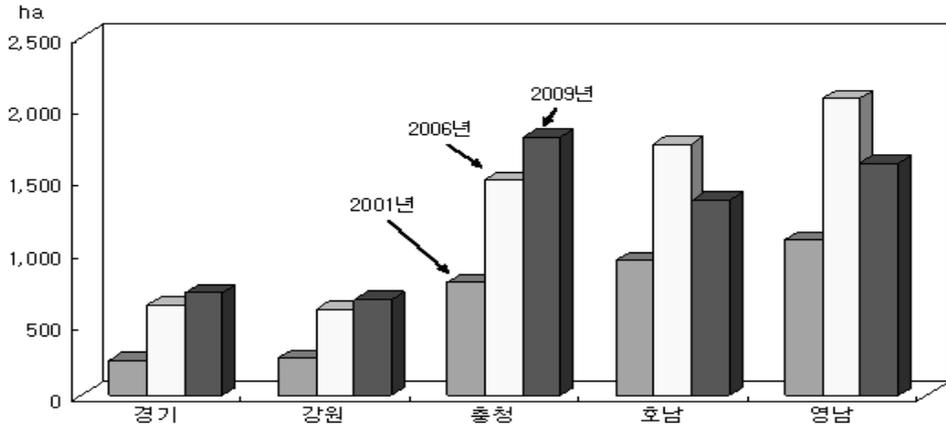
- 토마토 재배면적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은 전년 가격하락으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2기작 면적이 줄어 2007년보다 16% 감소한 6,144ha이었고 2009년은 전년보다 약 1% 증가한 6,188ha로 나타났다.
- 토마토 단수는 기술의 꾸준한 향상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6% 증가하고 있다. 2009년은 작황호조로 전년보다 2% 증가한 10a에 6,765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8% 상승하였으나 2008년은 재배면적이 줄어 감소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기상양호로 단수가 전년보다 높아 3% 증가한 42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26-15.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작물통계」, 각 연도.

그림 26-16. 토마토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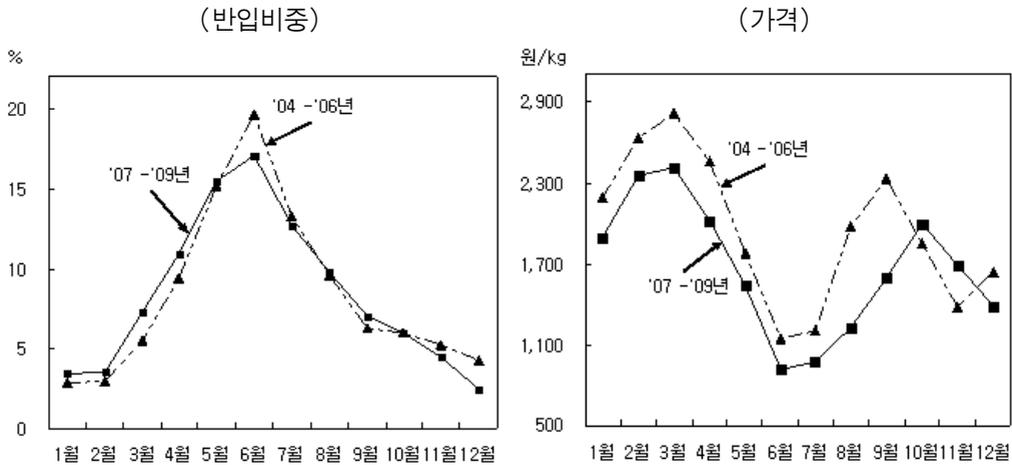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 토마토 지역별 2009년 재배면적은 호남, 영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6년보다 증가하였다. 경기, 강원지역은 지자체 시설지원으로 신규 시설면적이 늘어 2006년보다 12% 증가하였다. 충청지역은 축성작형 가격 상승으로 정식을 앞당기거나 재배규모를 확대해 2006년보다 20% 증가한 1,803ha이다.
- 반면 호남과 영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도시개발 등으로 2006년보다 각각 23%, 22% 감소한 1,363ha, 1,623ha로 나타났다.

3.1.2. 출하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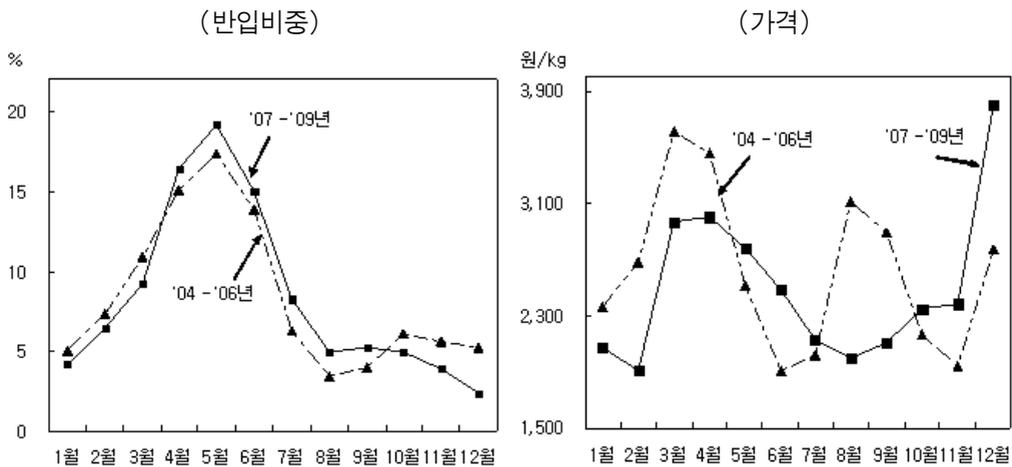
- 최근 3개년(2007~2009년)과 과거 3개년(2004~2006년) 서울(가락)도매시장 반입량을 비교하면, 일반토마토 3%, 방울토마토 10% 증가하였다. 반면 실질도매가격은 같은 기간 일반토마토 14%, 방울토마토 5% 하락하였다.
- 토마토의 최근 3개년 반입량은 과거 3개년에 비해 7% 많았다. 그러나 겨울철 반입량(12월~익년 2월)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일반토마토 3%, 방울토마토 18% 감소하였다.

그림 26-17. 일반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주: 반입량 및 가격(상품)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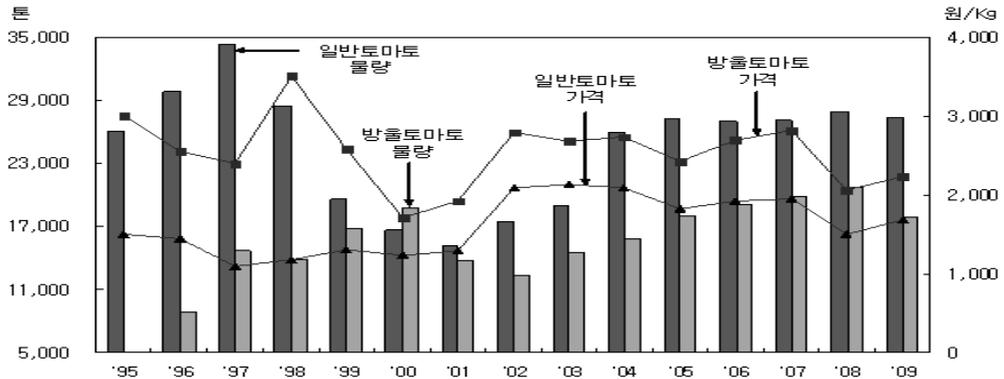
그림 26-18. 방울토마토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주: 반입량 및 가격(상품)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일반토마토는 최근 3개년 1~4월 반입비중이 과거 3개년보다 1%p 많았고 6월은 3%p 적었다. 그러나 10~11월을 제외하면 반입비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3개년 실질가격은 작황호조로 인한 공급량 증가로 과거 3개년보다 19% 하락했다.

그림 26-19. 토마토 품종별 반입량 및 실질가격



주: 1)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임.
 2)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으며, 상품가격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방울토마토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한겨울 재배를 피하는 경향으로 최근 3개월 1~3월은 과거 3개월보다 반입비중이 1~3%p 적지만 실질가격이 12~29% 하락한 반면 5~7월은 반입비중이 1~2%p 많지만 실질가격이 6~30%까지 상승했다. 이는 1~3월 수요는 감소하였지만 5~7월 수요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토마토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2001년 이후 반입량은 연평균 9% 증가하였으나 2009년은 전년보다 2% 감소하였다. 실질도매가격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승하였으나 공급량 증가로 2004년 이후 연평균 5%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12% 높은 1,682원/kg이다.
- 방울토마토의 반입량도 2001년 이후 연평균 6% 증가하였으나 2009년은 전년보다 14% 감소하였다. 실질도매가격은 2003년까지 상승하였지만 2004년 이후 연평균 4%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9년은 전년보다 8% 높은 2,238원/kg이다.
- 토마토 표본농가의 주요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계통출하 비중이 90%이며 직거래의 비중이 전체 농가 중 9%를 차지했다.

표 26-3. 토마토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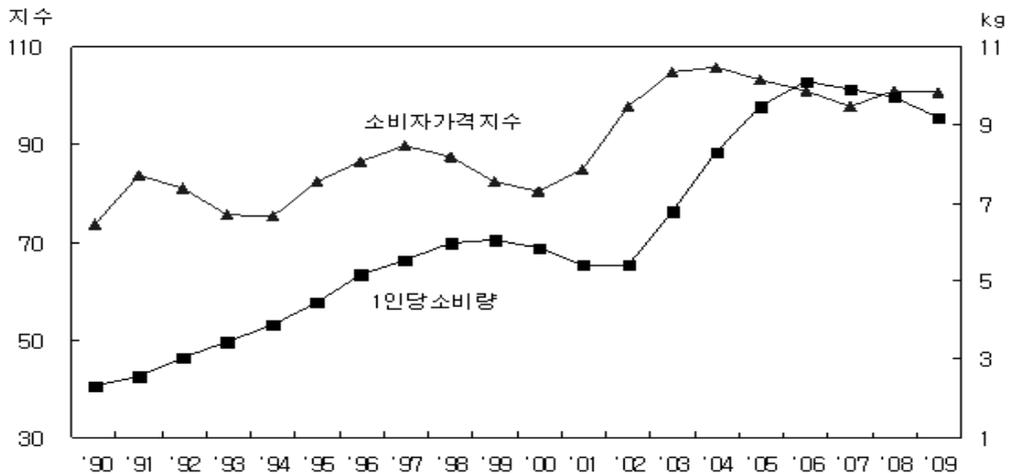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
	농협 (작목반)	영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대형 유통업체	통신 판매	직접 판매	
전국	71.3	4.1	11.9	2.8	4.1	1.0	4.1	0.8
경기·강원	62.0	3.1	22.8	0.0	2.0	0.8	9.1	0.0
충청	70.4	4.7	10.0	4.1	3.7	0.9	4.6	1.5
호남	77.9	4.5	5.8	3.6	6.2	0.4	0.6	0.9
영남	74.4	3.6	10.3	3.0	4.1	2.1	2.2	0.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농가 조사치.

3.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토마토는 소비자에게 웰빙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1인당 소비량은 2001년부터 연평균 17% 증가하여 2006년은 11.3kg이었으나 그 후 감소하여 2009년은 9.2kg으로 추정된다.
- 토마토의 실질소비자가격은 2003년까지 수요가 공급보다 커 상승하였으나 2005~2007년은 공급이 수요보다 커지면서 하락하였다. 2008년 이후 재배면적의 감소로 공급이 줄어 실질가격은 다소 상승하였다.

그림 26-20. 토마토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주: 1) 토마토 가격지수는 토마토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 2009년 소비자의 토마토 구매행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 동월과 비교한 소비량은 봄에서 여름, 가을로 갈수록 ‘줄었다’ 고 응답한 비중이 26~49%로 높고 ‘구입한 경험이 없다’ 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 결과 2009년은 전년보다 토마토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4. 월별 토마토 구입 횟수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단위: %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주 2회	주 3회	구입하지 않음
일반	4월	45.0	16.3	5.4	6.4	0.6	0.2	26.1
	6월	39.4	25.0	10.3	7.8	1.3	1.0	15.2
	8월	37.9	23.7	8.1	7.2	1.6	0.4	21.0
	10월	38.2	14.5	2.0	2.2	1.3	-	41.9
방울	4월	33.5	31.3	10.4	9.6	3.8	0.8	10.8
	6월	32.2	29.7	9.5	9.5	2.5	1.3	15.2
	8월	44.3	19.9	7.3	5.9	1.4	0.7	20.4
	10월	37.2	15.6	2.9	3.2	0.9	0.2	4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표 26-5. 작년 동월 대비 소비량 변화

단위: %

		4월	6월	8월	10월
늘었다	일반	16.2	23.6	13.2	6.8
	방울	15.7	17.0	7.4	6.3
비슷하다	일반	49.1	48.2	51.6	43.8
	방울	46.9	51.3	43.8	44.3
줄었다	일반	34.8	28.2	35.3	49.4
	방울	26.4	31.7	48.8	49.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3.1.4. 수출입 동향

- 토마토 수출량은 2009년 약 1,546톤으로 2000년부터 연평균 21% 감소하였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2000년 이후 국내 토마토 가격이 상승하고 일본의 경기침체와 안전성 관련 검역 강화로 수출이 크게 줄었으나 2009년은 전년보다 36% 증가한 855톤을 수출하였다.
- 토마토 수입은 2001~2007년 연평균 6%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 수입량은 감소하여 2009년 10월 현재 전년에 비해 23% 감소하였다. 토마토 수입은 대부분 가공품이며 페이스트가 약 60%를 차지한다.

표 26-6. 토마토 가공품목별 수입물량 추이

단위: 톤

연도	페이스트	식초·초산 조제 이외 기타	소스	페이스트 이외 기타	케첩	기타	합계
2005	27,829	5,689	3,364	1,880	871	219	39,851
2006	29,652	5,767	3,446	1,714	1,010	311	41,899
2007	29,519	6,657	3,548	1,829	1,391	213	43,157
2008	26,023	7,447	4,404	1,808	1,465	159	41,323
2009	19,056	5,939	3,843	1,506	1,285	131	31,760

주: 2009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물량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3.2. 수급 전망

- 2010년 토마토 재배면적은 건강식품 인식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2009년 보다 1% 증가한 6,206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이후 지자체의 시설지원과 수요의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6,454ha, 2020년 6,734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년 생산량은 시설보급 및 재배기술 발달로 단수가 증가하여 2009년 보다 1% 증가한 42만 톤이 될 것이며 2015년은 45만 톤, 2020년은 47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0년 1인당 소비량은 9.5kg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연평균 1% 증가하여 2015년 10.3kg, 2020년 10.8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7. 토마토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09	전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적	ha	6,188	6,206	6,454	6,734
단 수	kg/10a	6,765	6,788	6,896	7,011
총 공급량	천톤	483	487	520	551
국내 생산량	천톤	419	421	445	472
수입량	천톤	64	65	75	79
1인당 소비량	kg	9.2	9.5	10.3	10.8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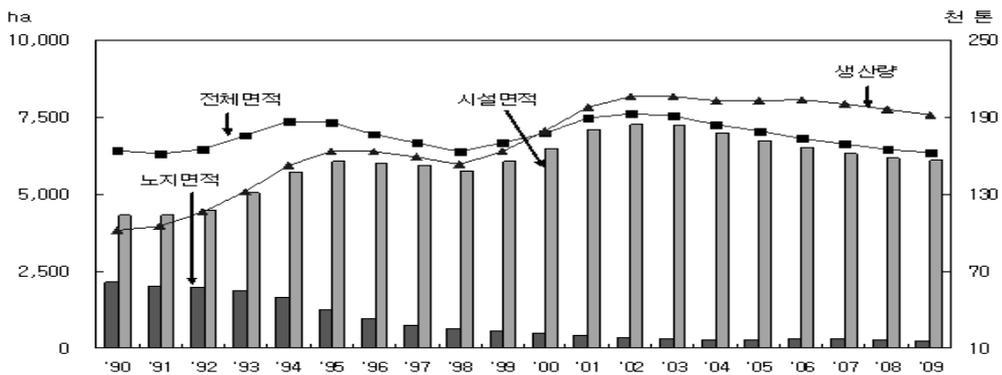
4 딸 기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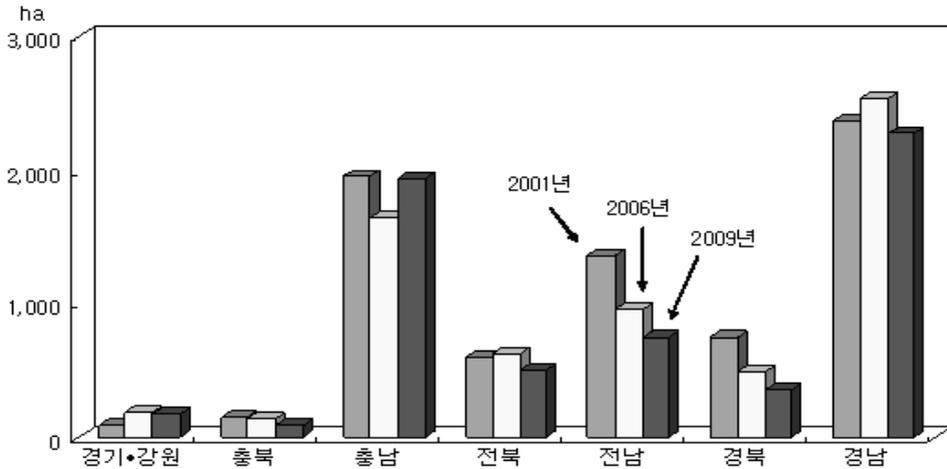
- 딸기 재배면적은 2002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였다. 노지면적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고 시설면적은 2000년대 초 상승하였지만 200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6,324ha이다.
- 딸기 단수는 국산 신품종 설향의 보급 확대와 고설재배 등 재배기술의 발달로 2002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단수는 전년보다 1% 증가한 10a에 3,032kg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딸기 생산량은 2002년을 정점으로 연평균 1%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생산량은 출하면적이 감소하여 전년보다 1% 적은 19만 2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21. 딸기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작물통계」, 각 연도.

그림 26-22. 딸기 지역별 재배면적 동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 2009년 재배면적은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2006년보다 감소하였다. 영·호남과 충북지역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하거나 규모를 줄였으나 충남지역은 신규시설 재배면적 증가로 18% 증가하였다.
- 국산품종은 2007년 35%, 2008년 42%, 2009년 56%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품종별 비중은 설향이 52%로 가장 많았고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65%이상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6-8. 주요 품종별 정식면적 비중

단위: %

	아끼히메			레드필			설향			매향		
	'07	'08	'09	'07	'08	'09	'07	'08	'09	'07	'08	'09
충북	9.2	7.9	11.5	41.9	29.4	9.5	31.7	47.9	68.4	9.4	9.2	5.3
충남	5.8	1.2	0.6	52.0	44.6	28.0	36.7	50.0	67.4	2.3	1.6	1.7
전북	6.6	6.3	4.1	34.2	28.6	18.7	45.4	51.3	65.8	12.9	12.8	11.2
전남	5.4	4.3	4.6	35.8	31.0	27.3	58.1	64.4	68.1	-	-	-
경북	11.8	8.4	7.6	80.8	68.9	53.4	5.5	19.1	37.6	1.5	3.3	0.9
경남	63.2	59.6	52.1	13.3	11.3	5.4	13.3	19.6	33.6	4.7	5.1	4.5
전국	30.2	26.9	22.5	32.8	29.2	19.5	28.6	36.8	51.8	4.7	4.4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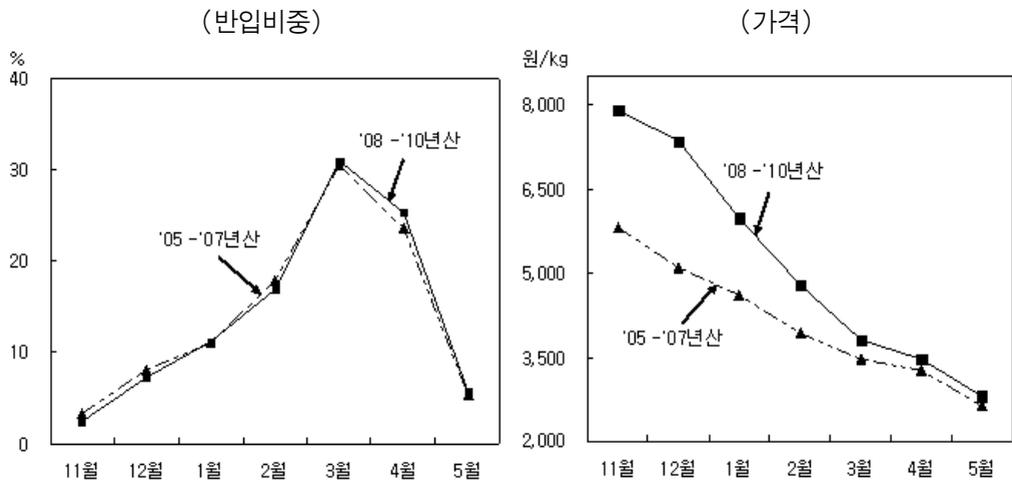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모니터 조사치.

- 아끼히메에서 설향으로 전환되는 비율보다 반촉성 작형인 레드필에서 설향으로 바뀌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레드필이 주로 출하되는 4~6월에 출하량은 감소하나 11~12월 출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1.2. 출하 및 가격 동향

- 딸기의 서울(가락)도매시장 최근 3개년(2008~2010년산) 월별 반입비중은 과거 3개년(2004~2006년산)과 비슷한 추세이다.
- 최근 3개년의 11~12월 반입비중이 줄고 3~4월 반입비중이 4%p 증가하였다. 촉성작형인 설향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2007~08년 병충해 피해와 정식 후 작황이 부진하였고 특히 레드필에서 설향으로 전환한 지역에서 아직 촉성재배 기술이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딸기의 최근 3개년 실질도매가격은 과거 3개년보다 25% 높았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최근 3개년 봄철(3월~5월) 가격은 8% 상승한 반면 겨울철(11월~2월)은 34% 높았다.

그림 26-23. 딸기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 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최근 3개년과 과거 3개년의 월별 반입비중은 비슷하지만 겨울철 실질도매가격이 봄철에 비해 높은 것은 딸기를 대체할 만한 제철과일이 적고 품질의 향상으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딸기 표본농가의 주요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계통출하 87%, 직거래 11%로 나타났다. 계통출하는 주로 농협(작목반)을 통해서 하며 직거래는 산지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9. 딸기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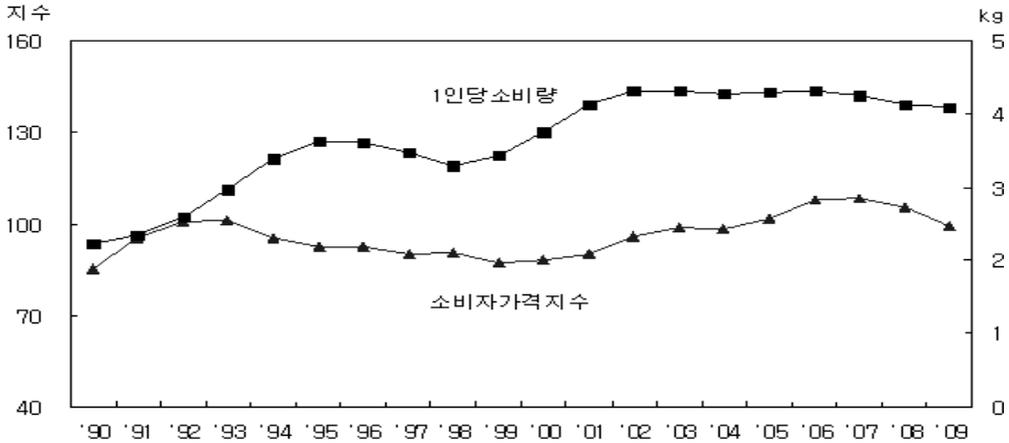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
	농협 (작목반)	영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대형 유통업체	통신판매	직접 판매	
전국	39.5	5.4	26.5	15.8	7.1	0.3	3.8	1.6
충북	48.6	19.3	14.3	14.3	0.0	0.0	3.6	0.0
충남	49.2	8.1	21.6	12.9	3.7	0.2	2.4	1.9
전북	44.5	3.4	21.4	20.9	6.6	0.0	3.3	0.0
전남	3.2	0.0	54.6	35.2	3.1	0.1	3.8	0.0
경북	26.3	7.9	27.7	14.2	15.8	0.6	6.9	0.6
경남	58.5	4.8	14.9	5.6	8.8	0.5	3.6	3.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농가 조사치.

4.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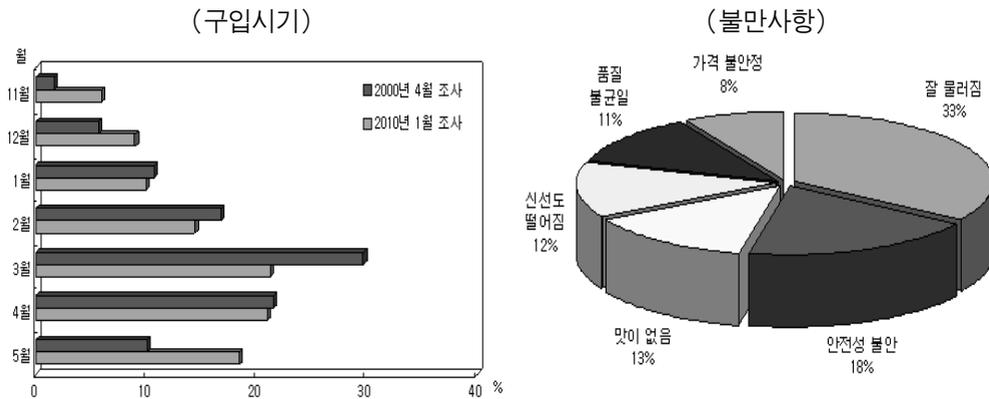
- 딸기 1인당 소비량은 1990년대 초반 2kg에서 2000년 이후 평균 4kg으로 증가하여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딸기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딸기 실질소비자가격은 2007년까지 상승하였지만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생산량이 많은 국산품종 설향의 보급으로 공급이 크게 늘어 딸기 가격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봄철 과일이었던 딸기는 축성작형 재배 증가로 조기 출하가 많아져 11~12월 구입비중이 전년보다 각각 4%p,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구입비율도 전년에 비해 11~5월 고루 분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림 26-24. 딸기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주: 1) 딸기 가격지수는 딸기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물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25. 딸기 구입시기 및 불만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조사치.

표 26-10. 딸기 구입 증감이유

단위: %

구입 증가이유		구입 감소이유	
맛이 좋아서	57.8	가격이 비싸서	61.1
건강에 좋아서	10.9	다른 과일을 구입해서	27.1
제철과일이므로	9.4	맛(품질)이 없어서	4.4
가격이 적당해서	6.3	소득이 감소해서	4.4
기타	15.6	기타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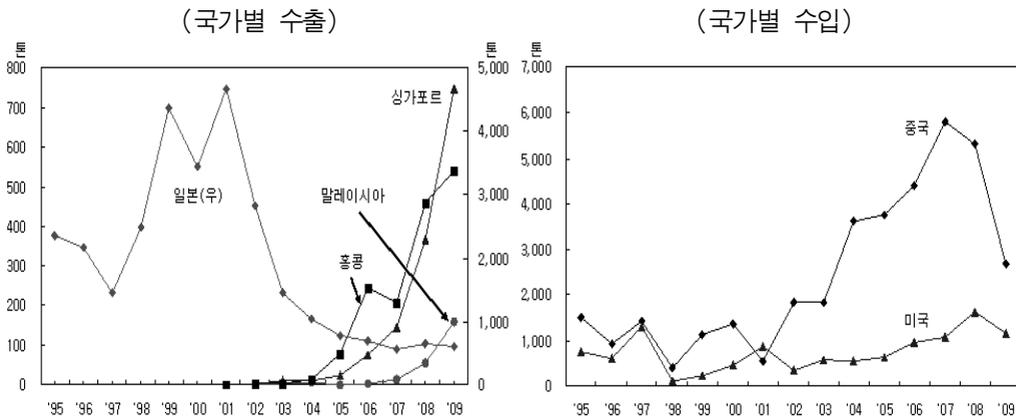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2010년 1월 소비자조사치.

- 소비자가 딸기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단한 정도이며 불만사항으로는 잘 물러짐과 안전성 불안으로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딸기 구입량을 늘린 주된 이유는 ‘맛이 좋아서’ 58%이며 소비를 줄인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 61%로 나타났다.

4.1.4.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 딸기 수출은 2001년 4,706톤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4년부터 동남아시아로 신선딸기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2,152톤을 수출하였다. 2007년 이전까지 수출은 냉동딸기가 60% 이상이었지 2009년은 신선딸기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6-26. 국가별 딸기 수출입 동향



주: 2009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물량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표 26-11. 딸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냉동	3,230	2,117	1,447	1,017	775	621	526	542	357
	신선	1,456	743	261	185	180	417	453	1,052	1,771
	전체	4,706	2,863	1,740	1,217	957	1,039	986	1,596	2,152
수입량	냉동	1,403	1,909	2,042	3,852	3,953	4,809	6,460	6,116	3,140
	전체	1,685	2,280	2,710	4,323	4,585	5,580	7,375	7,362	4,186

주: 2009년은 11월까지의 누계 물량임.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 딸기 수입량은 2002년 이후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나 2009년 수입량은 4,186톤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하였다. 이는 국산 냉동딸기의 출하 증가로 수입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4.2. 수급 전망

-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은 전년보다 1% 감소한 6,295ha이며 2015년 6,222ha, 2020년 6,147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딸기 단수는 국산품종 설향 등 축성작형으로 전환이 늘고 고설재배 등 재배기술의 발달로 향후 연평균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딸기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단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생산량은 2015년 20만 톤, 2020년 2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인당 소비량은 4.0kg으로 예상되며 이후에는 연평균 1% 증가하여 2015년 4.2kg, 2020년 4.4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6-12. 딸기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09	전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적	ha	6,324	6,295	6,222	6,147
단 수	kg/10a	3,032	3,063	3,233	3,423
총 공 급 량	천톤	196	198	209	218
국내생산량	천톤	191	193	201	210
수입량	천톤	4	5	7	8
1인당 소비량	kg	4.0	4.0	4.2	4.4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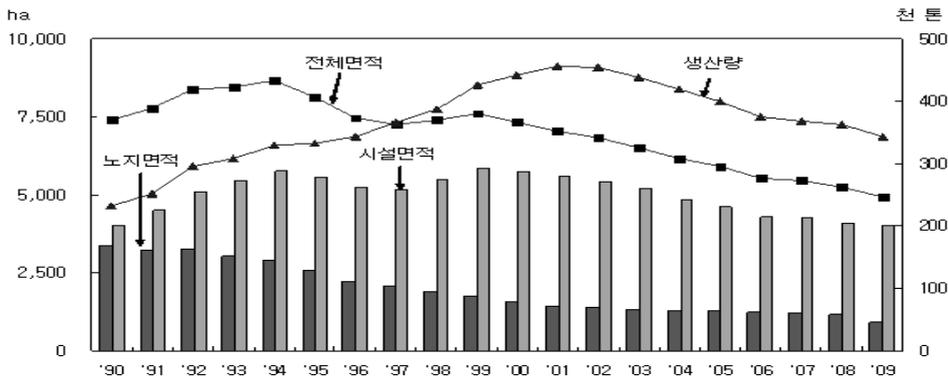
5 오 이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4% 감소하였다. 2009년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와 난방비 부담으로 일부 지역에서 복분자, 블루베리, 양상추 등으로 전환해 전년보다 12% 감소한 4,932ha로 나타났다.
- 오이 단수는 2000년대 이후 재배기술 발전으로 연평균 1% 증가하였다. 2009년 단수는 주산지의 일교차가 크고 흐린 날이 많아 병해충(흰가루병, 노균병) 발생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였지만 가격이 높아 포장 관리가 양호하여 전년보다 2% 증가한 10a에 6,949kg으로 추정된다.
-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어 2000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였다. 2009년은 재배면적이 크게 줄어 2008년보다 11% 감소한 34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림 26-27. 오이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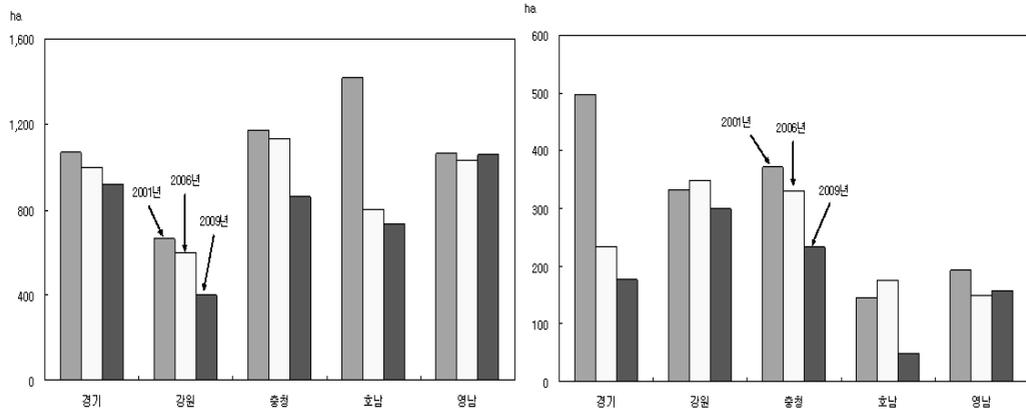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28. 오이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시설재배)

(노지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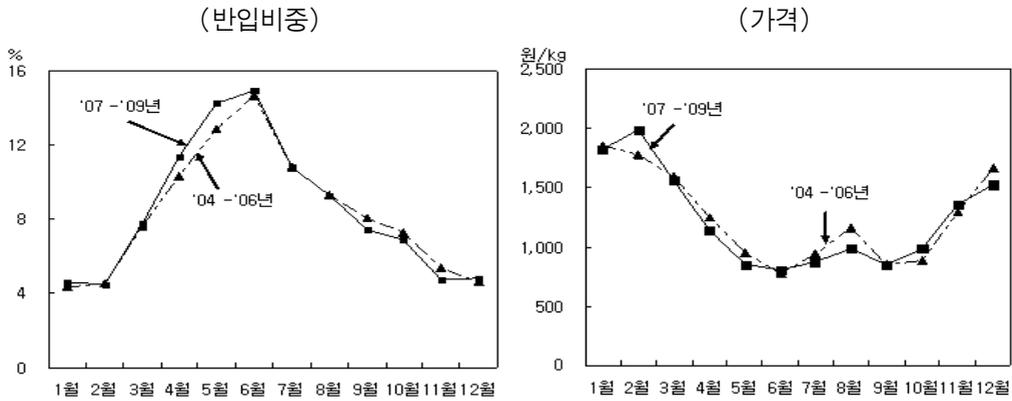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 시설오이 재배면적은 2001년 이후 연평균 4%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호남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취청오이가 참다래, 석류, 쌈채류 등으로 전환되어 2006년보다 9% 감소한 733ha이다. 영남지역은 올해 백다다기오이 가격이 높아 일부 농가에서 재배규모를 확대하여 2006년보다 3% 증가한 1,060ha이다.
- 2009년 노지오이 재배면적은 영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006년보다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지역 노지오이는 지자체의 시설지원 사업으로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2001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5.1.2. 출하 및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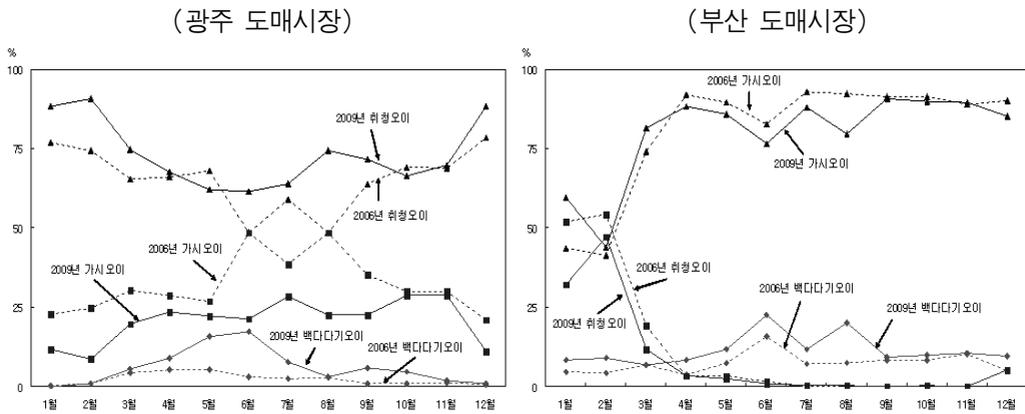
- 오이의 최근 3개년(2007~2009년) 3~5월 반입비중은 유가상승으로 축성작형이 반축성작형으로 전환하여 과거 3개년(2004~2006년)보다 3%p 증가한 반면 9~11월 반입비중은 취청오이 재배 농가가 작목을 변경하거나 휴경하여 과거보다 1%p 감소하였다.
- 오이의 2009년 가격은 1,260원/kg으로 2008년 1,096원/kg보다 15% 상승하였다. 3~5월 오이 반입비중 증가로 가격은 과거 3개년(2007~2009년) 보다 7% 하락한 1,180원/kg인 반면 9~11월은 1% 상승한 1,049원/kg이었다.

그림 26-29. 오이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스플레이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그림 26-30. 지방 도매시장의 오이 품종별 반입비중



자료: 주요도매시장(광주각화, 부산반여)

- 지방 도매시장의 품종별 오이 반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최근 백다다기오이 반입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청오이 재배비중이 높은 호남지역의 백다다기오이 반입비중은 2006년보다 1~10%p로 증가하였으며 가시오이 재배비중이 높은 영남지역의 백다다기오이 반입비중은 1~13%p 증가하였다.
- 반면 영남지역의 가시오이 반입비중은 4월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지방에서 백다다기오이 소비 비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09년 오이 표본농가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농협(작목반)을 통한 계통 출하가 84%로 가장 많았고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11%, 산지공판장 출하가 3%로 조사되었다.
- 강원지역은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가 96%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지역은 영농법인을 통한 계통출하 비중도 15%로 나타났다. 특히 영·호남지역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떨어져 산지공판장에서의 거래도 각각 6%, 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3. 오이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
	농협 (작목반)	영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대형 유통업체	통신 판매	직접 판매	
전국	83.5	1.3	10.8	2.8	0.2	0.1	0.6	0.6
경기	93.7	0.2	3.0	2.1	0.0	0.0	0.9	0.0
강원	96.2	1.0	1.9	0.0	0.7	0.0	0.1	0.0
충청	77.6	0.9	15.4	4.0	0.1	0.3	0.8	0.9
호남	88.3	0.0	1.2	6.7	0.0	0.0	1.1	2.7
영남	75.1	14.8	4.5	5.5	0.0	0.0	0.0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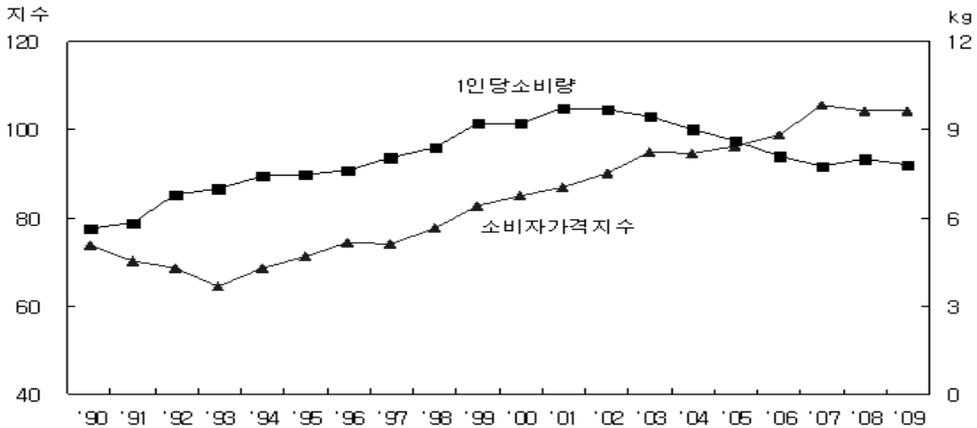
5.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 오이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이후 연평균 3% 감소하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2008년보다 10% 감소한 7.5kg으로 추정된다.
- 오이 실질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실질소비자가격은 상승하고 1인당 소비량은 감소하는데 이는 수요량 감소율 보다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7월 전국 8대 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패널(5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이를 매주 구매하는 비중이 31%로 가장 높으며 1회 구입 시

평균 4~5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구매금액은 평균 1,960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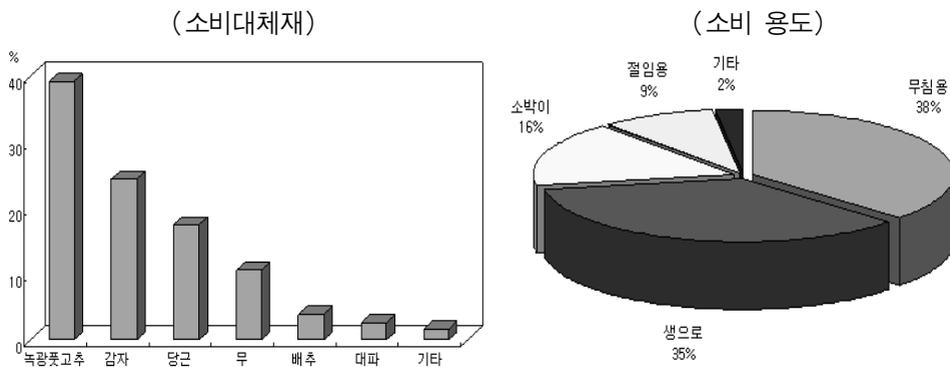
- 7월 오이 가격이 비쌀 경우 녹광뿔고추(39%), 감자(25%), 당근(18%)으로 대체 소비하며 소비용도는 ‘무침용’ 38%, ‘생으로’ 35%, ‘소박이’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31. 오이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주: 1) 오이 가격지수는 오이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스플레이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32. 오이 소비대체재와 소비 용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2009년 7월 소비자 조사치.

- 서울시내 외식업체별 오이 구매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4 분기 오이 구매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월 평균 구입 횟수가 많은 취청오이는 백다다기오이에 비해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4. 외식업체 오이 품종별 구매변화 ('09/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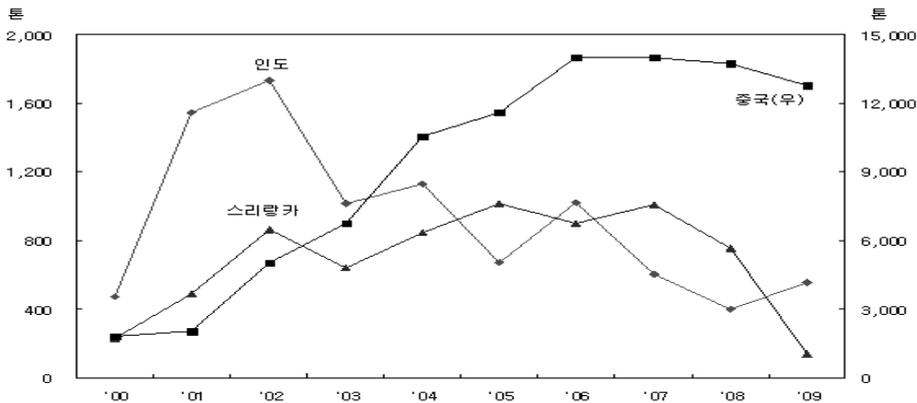
	업체수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대비 1/4분기 구매량 증감률(%)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대비 1/4분기 구매량 증감률(%)
고기구이	86	3.0	-8.7	5.0	14.0
양식	62	1.8	0.0	5.4	-2.0
중식	58	5.8	-7.8	6.8	-16.1
일식	58	3.4	-17.2	4.5	-28.2
분식	38	2.5	-11.1	5.8	-7.2
탕전문	35	4.3	-12.5	5.0	-22.2
한식	117	3.6	-7.4	4.8	-21.9
단체급식소	12	9.3	0.0	9.0	-44.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서울지역 외식업체 조사치.

5.1.4. 수출입 동향

- 오이 수출량은 2001년 8,264톤을 정점으로 연평균 36%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주 수출국은 일본이며 2009년은 전년보다 12% 감소한 152톤을 수출하였다. 오이 수입량은 2006년 2만 톤 이후 감소하였으며 2009년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1만 6,157톤을 수입하였다.

그림 26-33. 국가별 절임오이 수입 동향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국가별 절임오이 수입량은 중국에서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은 중국산 절임 오이의 단가 상승으로 2008년에 비해 7% 감소한 1만 3,750톤이다. 반면 인도에서 수입은 비중이 적지만 2008년보다 41% 증가한 559톤이다.

표 26-15. 오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신선	5,805	8,259	3,529	2,255	1,236	918	398	304	108	37
	절임	0	1	42	51	33	4	3	4	5	57
	기타	1	5	5	14	51	29	38	106	59	58
	전체	5,807	8,264	3,575	2,320	1,320	951	440	414	172	152
수입량	신선	0	0	0	14	0	0	0	5	0	14
	절임	2,575	4,095	7,809	8,404	12,551	13,305	15,924	15,626	14,916	13,750
	기타	6,614	5,904	6,204	5,679	5,232	4,357	4,120	3,961	3,970	2,392
	전체	8,739	9,999	14,013	14,096	17,783	17,663	20,044	19,592	18,886	16,157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5.2. 수급 전망

- 2010년 백다다기오이 1~2월 봄철 가격 상승 기대로 축성작형 정식면적은 2009년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취청오이는 호남지역에서 양상추,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2009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 2009년보다 2% 감소한 4,852ha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이 재배면적은 연평균 2% 감소하여 2015년 4,721ha, 2020년 4,643ha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지만 단수가 늘어 2009년보다 1% 감소한 34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2020년 생산량도 각각 3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이 수입량은 2010년 2만 5천 톤에서 2015년 3만 1천 톤, 2020년 3만 4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오이 1인당 소비량은 7.4kg로 2009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은 7.4kg, 2020년은 7.5kg로 전망된다.

표 26-16. 오이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09	전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적	ha	4,932	4,852	4,721	4,643
단 수	kg/10a	6,949	6,989	7,089	7,289
총 공 급 량	천톤	365	364	366	372
국내 생산량	천톤	343	339	335	338
수 입 량	천톤	22	25	31	34
1인당 소비량	kg	7.5	7.4	7.4	7.5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수입량은 절임오이를 신선오이로 환산한 수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6 호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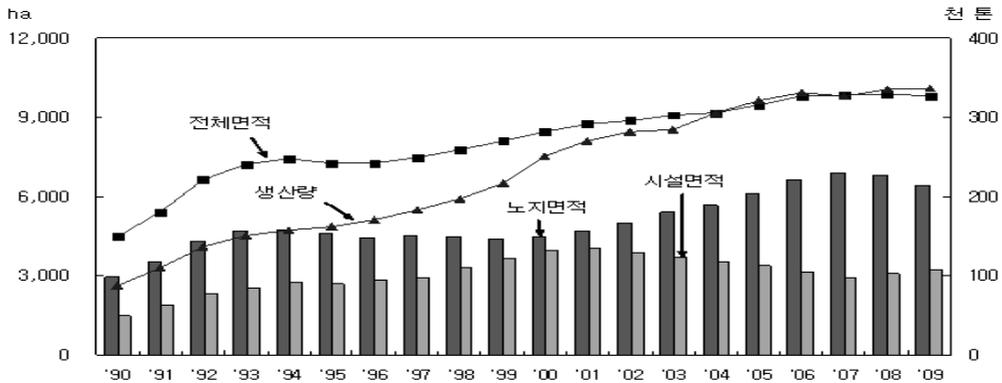
6.1. 수급 동향

6.1.1. 생산 동향

- 호박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연평균 2% 증가하였다.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단호박과 둥근애호박 재배가 늘었다. 반면 시설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난방비 부담이 덜한 상추, 딸기 등으로 전환하여 200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 감소하였다.
- 하지만 2009년 호박 재배면적은 노지재배면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시설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3% 증가한 9,795ha이다. 영·호남지역은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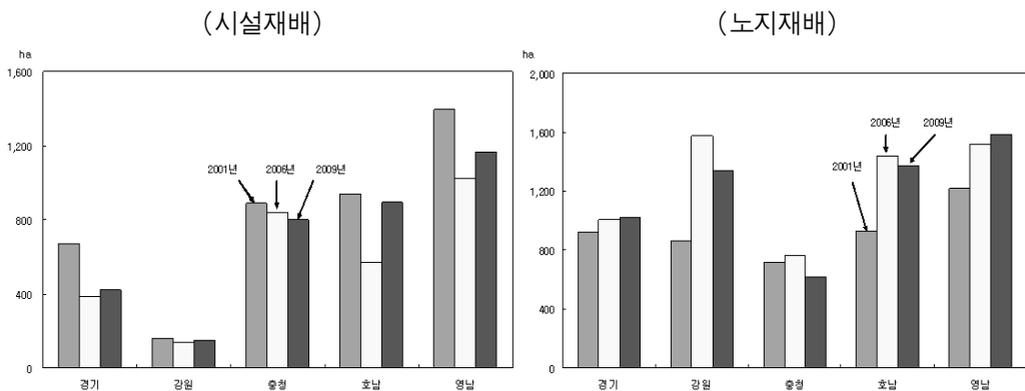
해 가격이 좋아 애호박 재배를 늘리고 강원지역은 지자체 시설지원으로 노지재배를 하던 일부 농가가 시설재배로 전환하였다.

그림 26-34. 호박 재배면적과 생산량(3개년 이동평균)



주: 2009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그림 26-35. 호박 작형별 재배면적 동향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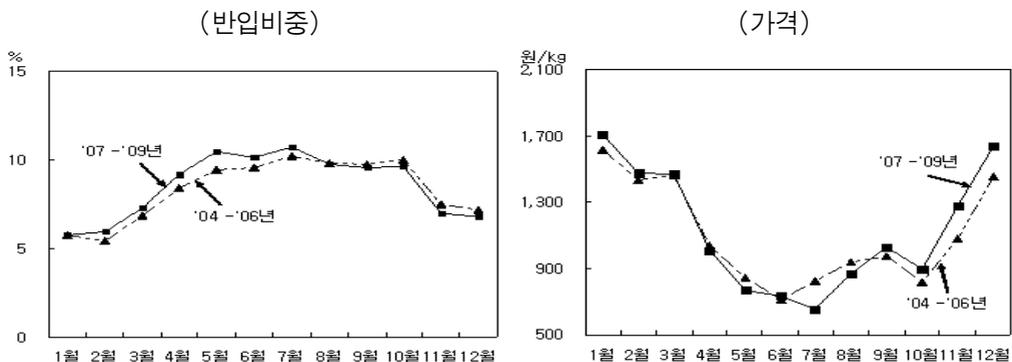
- 호박 단수는 재배기술 향상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 증가하였다. 2009년 단수는 주산지에서 출하기 흐린 날이 많아 작황은 부진하였지만 연장재배가 늘어 전년보다 2% 증가한 10a에 3,522kg으로 추정된다.
-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늘고 기술 향상으로 단수도 높아 2000년 이후 연평균 5% 증가하였다. 2009년 생산량은 전년보다 5% 증가한 35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09년 시설호박 재배면적은 2006년보다 16% 증가하였다. 충청지역은 수박, 상추 등으로 전환하여 감소한 반면 경기, 호남, 영남지역은 겨울철 애호박 가격이 높아 재배를 연장하거나 딸기, 멜론 농가가 애호박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노지재배면적은 단호박, 둥근애호박의 재배증가로 경기, 영남지역에서 2006년보다 각각 2%, 5% 증가하였다.

6.1.2. 출하 및 가격 동향

- 호박의 2009년 평균가격은 1,102원/kg으로 2008년 1,056원/kg보다 4% 상승하였다. 최근 3개년(2007~2009년)의 3~8월 반입비중은 과거 3개년(2004~2006년)보다 2~6%p 증가한 반면, 9~11월 반입비중은 1%p 감소하였다.
- 3~8월 반입비중은 영남지역의 축성작형 애호박 재배농가의 연장재배와 기상여건 양호로 강원지역의 정식시기가 앞당겨져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9~11월은 작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 9~10월 정식면적이 줄거나 겨울철 재배를 피하여 감소하고 있다.

그림 26-36. 호박 월별 도매시장 반입비중 및 실질가격 동향



주: 반입량 및 가격은 서울(가락)도매시장 실적자료이며, 가격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로 디플레이트하였음.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3~8월 평균가격은 과거 3개년 971원/kg에서 6% 하락한 917원/kg이지만 9~11월은 과거보다 12% 상승한 1,068원/kg이다.

- 2009년 호박 표본농가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농협(작목반)을 통한 계통 출하가 8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영남지역은 도매시장이나 산지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하시기의 안정적인 가격 확보를 위해 서울 도매시장과 산지시장으로 분산출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17. 호박 농가 주요 유통경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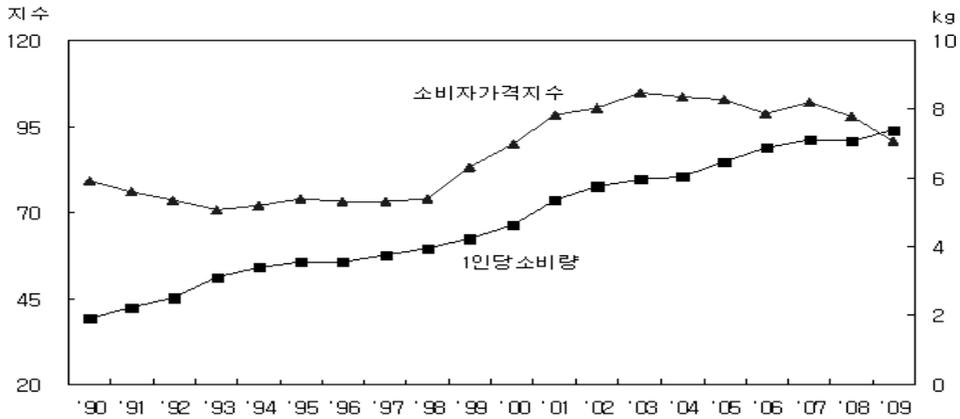
	계통출하				직거래			기타
	농협 (작목반)	영농 법인	도매 시장	산지 공판장	대형 유통업체	통신 판매	직접 판매	
전국	87.5	1.8	4.4	4.9	0.2	0.1	0.7	0.5
경기	95.4	0.0	0.0	0.0	0.0	0.0	0.0	4.6
강원	93.5	0.0	3.3	3.0	0.0	0.2	0.0	0.0
충청	91.6	5.6	0.7	2.0	0.0	0.0	0.0	0.0
호남	90.4	0.0	2.0	5.0	0.0	0.0	5.0	0.6
영남	54.5	0.0	22.0	19.6	1.4	0.0	2.4	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6.1.3. 소비 및 소비자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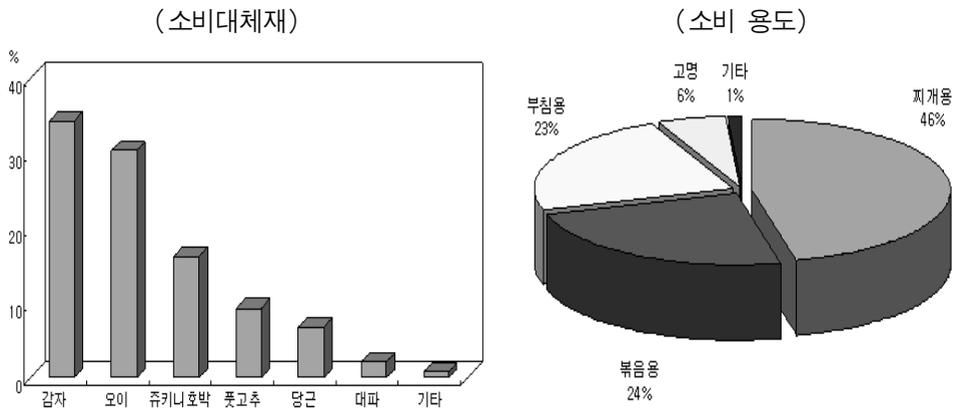
- 호박 1인당 소비량은 2003년 이후 연평균 5%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4% 증가한 7.4kg으로 추정된다.
- 호박 실질소비자가격은 2000년 이후 1인당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호박 소비량 증가율이 공급량 증가율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9년은 전년보다 7% 하락하였다.
- 2009년 7월 애호박 소비자 조사 결과, 월 2회 구매 비중이 29%로 가장 높으며 1회 구입 시 평균 1~2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구매 금액은 평균 1,55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6-37. 호박 1인당 소비량과 가격동향(3개년 이동평균)



주: 1) 호박 가격지수는 호박 소비자가격지수를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로 디플레이트한 것임.
 2) 2009년 1인당 소비량은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채소류 생산실적」, 각 연도, 통계청(KOSIS).

그림 26-38. 호박 소비대체재와 소비 용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2009년 7월 소비자 조사치.

- 7월 애호박 가격이 비쌀 경우에 소비자는 감자(34%), 오이(30%)를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용도는 ‘찌개용’ 46%, ‘볶음용’ 24%로 조사되었다.
- 서울시내 외식업체별 호박 구매변화를 조사한 결과, 2009년 1/4 분기 호박 구매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작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식, 탕전문 업소에서 주키니호박 구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18. 외식업체 호박 품종별 구매변화 ('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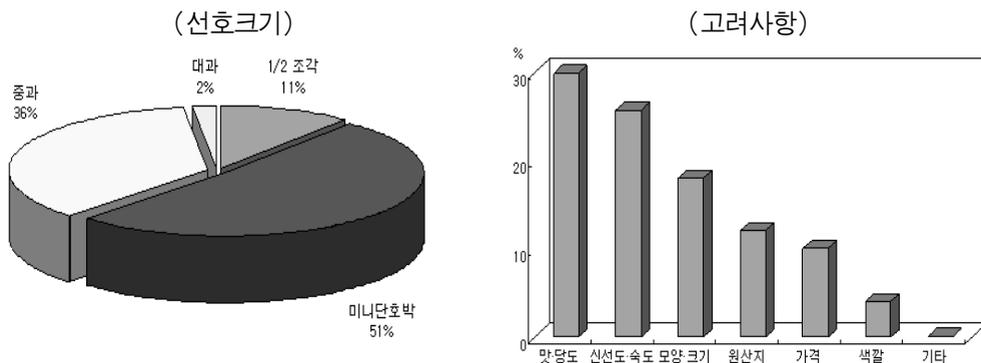
	업체수	애호박		쥬키니호박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대비 1/4분기 구매량 증감률(%)	월 평균 구입횟수(회)	작년대비1/4분기 구매량 증감률(%)
고기구이	86	5.5	-1.2	4.4	-13.6
양식	62	9.8	-21.1	4.0	-4.3
중식	58	5.8	-12.9	4.2	0.0
일식	58	5.2	-20.3	5.5	-1.2
분식	38	5.4	-21.3	2.7	-10.4
탕전문	35	4.2	-11.6	1.5	-33.3
한식	117	5.0	28.9	4.3	-42.9
단체급식소	12	4.5	4.2	11.1	-32.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서울지역 외식업체 조사치.

6.1.4. 단호박 소비자 구매행태

- 2009년 10월 소비자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단호박은 소비자의 80%, 단호박 가공품은 70%가 구입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호박 구입 이유는 '건강에 좋아서' 52%, '맛이 좋아서' 30%의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는 단호박을 웰빙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비자는 단호박을 1회 구매 시 주로 1개(61%)를 구매하고 1회 지출 금액은 2~3천원(44%)이며 '미니단호박(1kg 미만)' 51%, '중과(1~1.2kg)' 36%로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39. 신선단호박 구입 시 크기와 고려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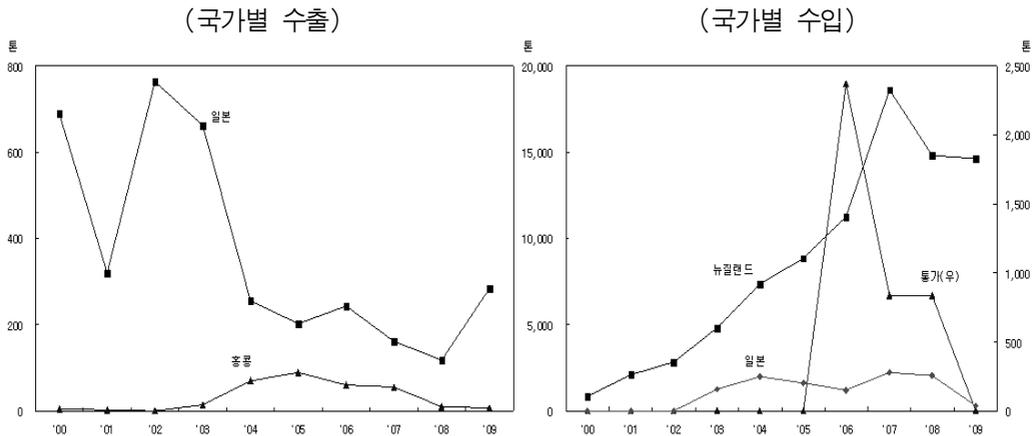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치

- 신선단호박 구입 시 고려사항은 ‘맛·당도, 신선도(65%)’이며 불만 사항은 품질·안전성(46%)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호박 구입량을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99%이며 이 중 현재보다 ‘10~20% 늘리겠다’가 51%로 단호박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1.5. 수출입 동향

- 단호박 수출량은 1999년 1,268톤을 정점으로 2008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하였으나 2009년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304톤을 수출하였다. 수출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2002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2009년은 작년보다 2배 증가한 304톤을 수출하였다.

그림 26-40. 국가별 단호박 수출입 동향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26-19. 호박 수출입 동향

단위: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695	335	770	699	333	296	304	220	139	304
수입량	888	2,089	2,851	4,950	7,581	9,055	13,785	19,722	15,890	14,764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단호박은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여 수입량은 2001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나 2009년 단호박 수입량은 작년보다 7% 감소한 1만 4,764톤이다.

6.2. 수급 전망

- 2010년 1~2월 애호박 정식면적은 최근 애호박 가격이 높아 2009년보다 각각 8%,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키니호박은 영·호남지역에서 애호박, 양상추로 전환하여 2009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박 재배면적은 단호박 등의 재배가 꾸준히 늘어 2010년 9,820ha, 2015년 10,268ha, 2020년 10,744ha로 연평균 3% 증가할 전망이다.
- 2010년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단수가 늘어 2009년보다 2% 증가한 3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은 39만 톤, 2020년 42만 톤으로 연평균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호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량은 2010년 1만 5천 톤에서 2015년 1만 7천톤, 2020년 1만 9천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0년 호박 1인당 소비량은 2009년보다 1% 증가한 7.5kg로 예상되며 이후 꾸준한 증가로 2015년 8.2kg, 2020년 8.8kg로 전망된다.

표 26-20. 호박 수급 전망

구 분	단 위	2009	전 망		
			2010	2015	2020
재 배 면 적	ha	9,795	9,820	10,268	10,744
단 수	kg/10a	3,522	3,584	3,780	3,862
총 공 급 량	천톤	360	367	405	434
국내 생산량	천톤	345	352	388	415
수 입 량	천톤	15	15	17	19
1인당 소비량	kg	7.4	7.5	8.2	8.8

주: 1) 2009년은 추정치임.
2)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7 과채 농가 경영과 수출 동향

7.1. 과채 농가의 향후 경영 의향

- 우리나라 농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노동력 부족 뿐만 아니라 향후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특히 신선채소는 거의 수입되지 않으므로 공급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과채 농가(2,395호)를 대상으로 향후 경영의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다’ 는 참외 농가 85%를 제외하면 50% 내외에 불과하다.
- 또한 토마토, 호박, 오이는 ‘가격에 따라 타작목으로 전환한다’ 는 응답이 각각 23%, 26%, 19%로 나타났다. 전작기 출하가격이나 정식기 가격에 따라 경영 변화가 큰 품목은 수급이 불안정하여 가격등락이 심하고 그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성도 낮다. 그러므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분산 정식 및 출하 조정 등 생산과잉 대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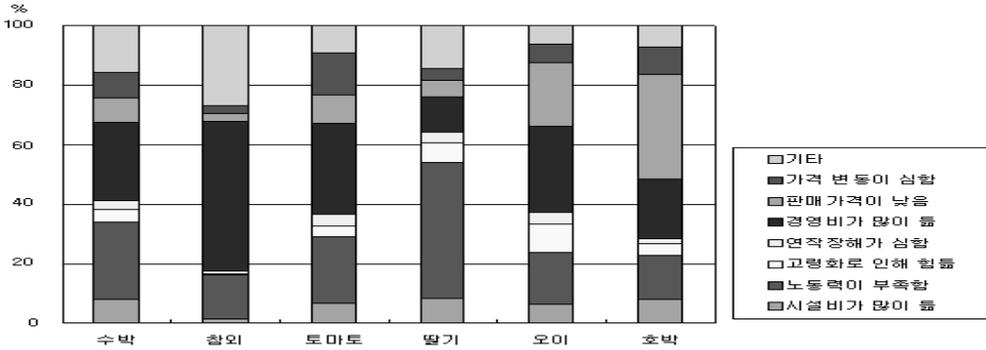
표 26-21. 과채 농가의 향후 경영 의향

단위: %

	계속 경영		가격에 따라 결정 (타품목 전환)	고령화로 인한 농업 경영 포기	기 타
	5년 이상	10년 이상			
수박	25.4	57.0	12.4	3.8	1.4
참외	9.6	84.9	2.4	1.2	1.8
토마토	21.2	51.4	22.8	0.9	3.7
딸기	43.7	42.4	5.6	2.8	5.6
오이	28.4	46.2	19.2	3.1	3.1
호박	17.4	54.8	25.7	0.4	1.7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그림 26-41. 과채농가 경영의 애로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반면 과채 농가 경영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 참외, 토마토, 오이 농가는 ‘경영비가 많이 든다’가 각각 50%, 30%, 29%로 많았다. 딸기 농가는 노동력 부족(46%), 호박 농가는 판매가격이 낮아(35%)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품목별로 경영의 애로 사항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시설자재·농약·노동비 등 각종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7.2. 과채류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 11.3억\$에서 2008년 26.2억\$로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농산물 중 약 9%를 차지하는 채소류는 일본 수출이 줄면서 2007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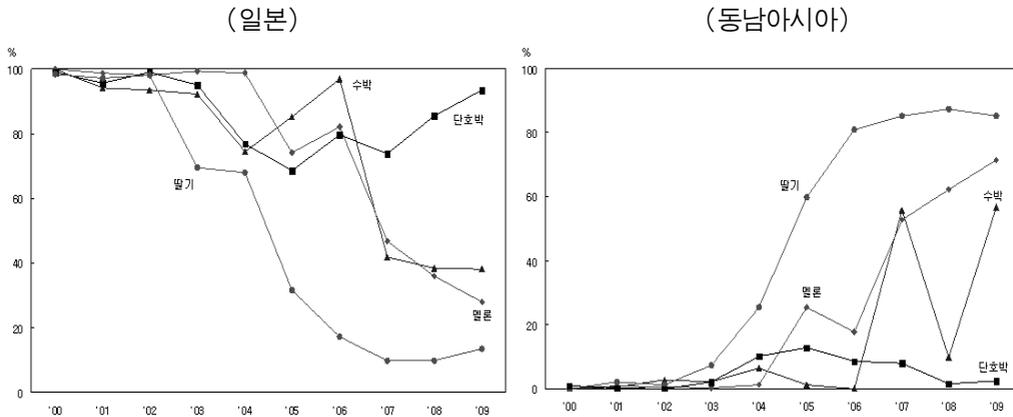
표 26-22. 농산물 수출액 추이와 채소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산물	1,759	1,899	2,008	2,222	2,621
채소류	229.7	231.4	203.9	196.4	233.9
비중	13.1	12.2	10.2	8.8	8.9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2009 주요 통계.

그림 26-42. 과채류 일본 및 동남아시아 수출량 비중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채소류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지만 최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한국 드라 마 수출을 계기로 한국 문화가 전파되고 한식(韓食)을 비롯한 먹을거리 문화도 빠르게 전해지며 한국산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7.2.1. 일본 수출 동향

- 일본의 과채류 재배면적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휴경하거나 재배 규모를 줄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호박을 제외하면 2007년 과채류 재배면적은 2006년보다 3% 감소하였다.
- 우리나라 과채류의 일본 수출은 1990년대 엔화 강세로 증가하였지만 2001년 이후 국내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고 일본의 농약 포지티브 제도 등 검역 강화, 엔화 약세 등의 이유로 크게 감소하였다.
- 과채류 일본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박, 멜론, 토마토는 일본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일본에서 한국산이 중저품으로 인식되어 수출단가가 높지 않은 것이 문제이므로 고 품질 상품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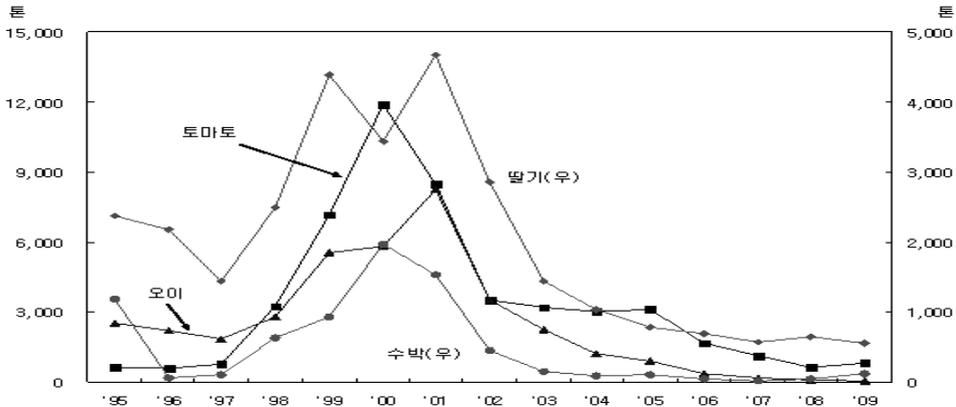
표 26-23. 일본 과채 재배면적과 생산량 동향

단위: ha, 천톤

	2004		2005		2006		2007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토마토	13,100	755	13,000	759	12,900	728	12,700	750
오이	13,700	673	13,400	675	13,100	629	12,800	640
단호박	16,800	226	16,900	234	16,900	220	17,200	231
피망	3,680	153	3,620	154	3,540	147	3,500	150
딸기	7,000	198	6,880	196	6,790	191	6,580	191
수박	13,900	454	13,400	450	13,000	419	12,600	422
멜론	11,100	249	10,400	242	9,830	217	9,520	221
계	79,280	-	77,600	-	76,060	-	74,900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부 '채소 생산출하 통계'.

그림 26-43. 주요 과채의 일본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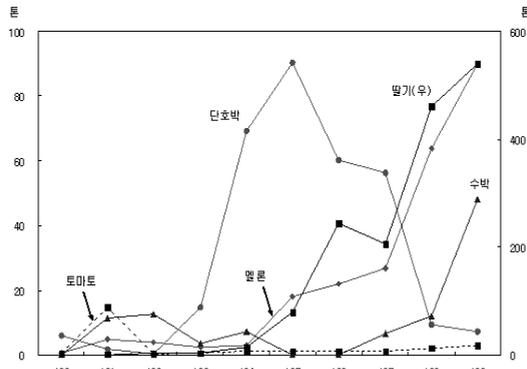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7.2.2 동남아시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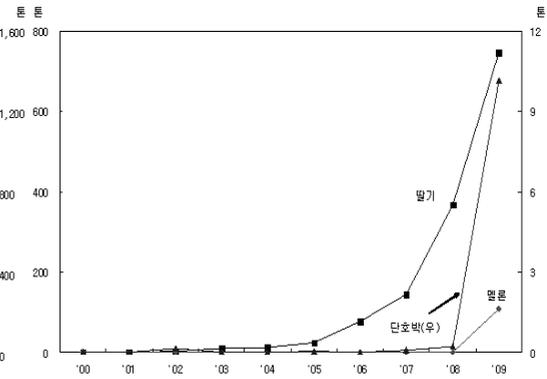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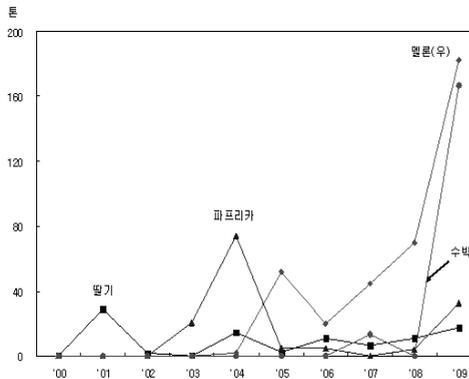
- 과채류의 동남아시아 수출량이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동남아시아에는 이미 미국, 호주, 남미에서 농수산물들이 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 홍콩에는 딸기, 멜론, 수박, 파프리카, 단호박 등이 수출된다. 딸기는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수출량이 증가하였는데 2009년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540톤이다.

그림 26-44. 주요 과채의 동남아시아 수출 동향
(홍콩)



(대만)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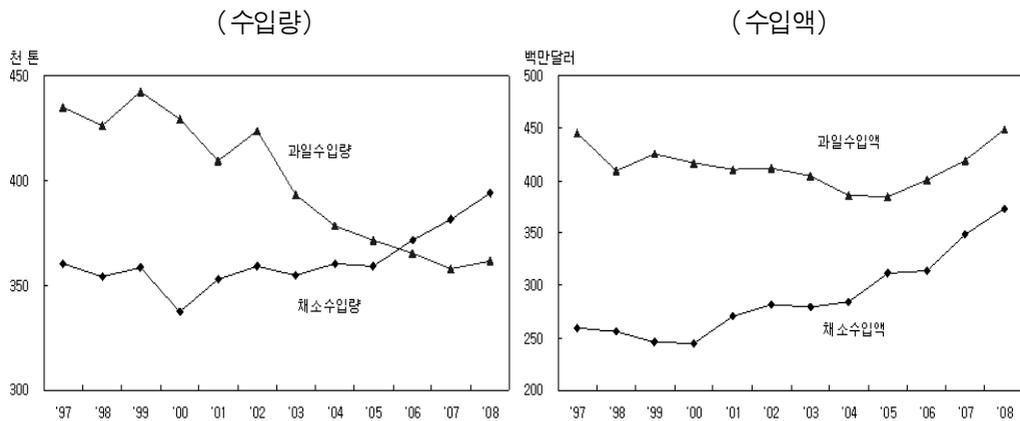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대만으로 수출되는 과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멜론은 2004년 13톤에서 2009년은 전년보다 2.6배 많은 1,500톤을 수출하였다.
- 싱가포르는 딸기 수출량이 2003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9년은 전년보다 2배 증가한 748톤이다. 딸기 외에도 멜론, 단호박도 수출이 기대되며 수출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 그 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도 딸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 딸기 수출업체와 수출작목반에서 홍콩, 싱가포르 이외에도 꾸준히 딸기 수출 판로를 개척한 성과인데 말레이시아는 2009년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159톤을 수출하였다.

7.2.3. 싱가포르²⁾ 딸기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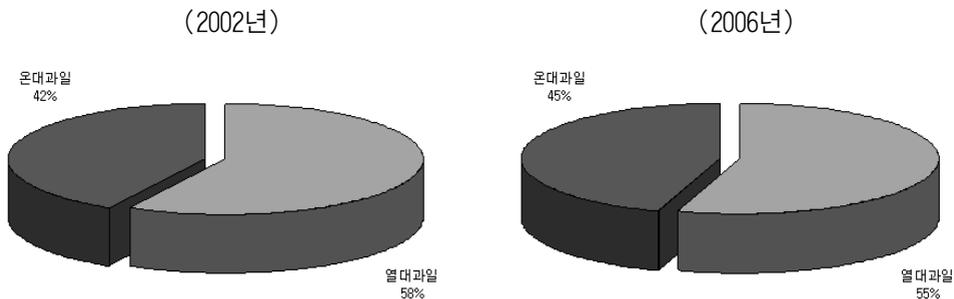
- 싱가포르 채소류 수입량은 1997년 이후 연평균 1% 증가하는 반면 과일류 수입량은 연평균 2% 감소하고 있다. 과일류 수입량은 감소하지만 수입액이 증가하는 것은 열대과일에서 사과, 배, 감귤, 딸기 등 온대과일로 고품질 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

그림 26-45. 싱가포르 청과류 수입량과 수입액 동향



자료: 싱가포르 농업식품국(AVA), 2009.

그림 26-46. 싱가포르의 과일 수입량 변화



자료: 싱가포르 농업식품국(AVA), 2009.

- 2) 싱가포르는 제주도 면적의 38%에 불과하며 인기도 2008년 약 484만 명이지만 동남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이며 한국에서 대만-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를 잇는 물류 유통의 중심에 있다. 국민 1인당 GDP는 2008년 \$39,419로 서유럽 수준이고 식품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 3)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입 온대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 싱가포르에 한국산 딸기 수출은 2002년 2톤을 시작으로 2009년은 748톤을 수출하였다. 싱가포르의 딸기 수입은 한국산이 12월~익년 4월에 10~15%, 미국산은 2~10월에 약 40%를 차지한다.
- 한국산 딸기는 11월~익년 2월에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으나⁴⁾ 2월 이후 값싼 미국산이 수입되고 3월 이후 한국산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면 경쟁력이 낮다.⁵⁾ 따라서 3월 이후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산지 포장단계부터 저온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품질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동남아시아 상권을 장악한 화교 수입업체는 개인의 신뢰관계를 중시하고 상류를 최대한 줄여 직접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장기 전망보다 단기적인 손익에 역점을 두며 가격에 엄격하고 충동적으로 거래를 결정하지 않는다.⁶⁾ 화교의 상관습을 이해하고 한국산 농산물은 고품질이며 안전·안심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동남아시아 농산물 수출에서 나타난 사실은 ‘시장’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높지만 반면 그렇게 쉽게 팔리지는 않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팔릴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표 26-24. 대 싱가포르 딸기 수출량

단위: kg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량	1,929	10,199	11,454	24,714	76,971	145,229	366,660	747,589

주: 2009년은 11월까지 누계물량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4) 한국산 딸기는 일본산에 비해 당도가 떨어지나 단맛과 신맛이 적절히 조화되고 과가 단단해 저장기간이 길다. 반면 미국산은 수송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리고 노지재배의 단단한 품종에 완숙 70~80%이므로 신맛이 강해 보통 값싼 미국산 딸기는 설탕을 묻혀 먹는 과일이다.
- 5) 3월 이후 한국산 딸기는 품질이 낮아지는 반면 미국산은 품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싱가포르 수입업체는 전략적으로 한국산은 저렴한 가격의 작은 크기를 주문하게 된다.
- 6) 2005년 11월 22일 일본 농산물 수출 촉진세미나에서 八幡卓美((주) 이큅스트레드대표) 발표. 출처 : http://www.maff.go.jp/j/export/seminar/pdf/2005_seminar08.pdf